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5학년도
석사학위논문

제주 선교의 고찰(考察)과
선교의 주체로서의 제주 교회의 역할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선교신학 전공

심재국



제주 선교의 고찰(考察)과
선교의 주체로서의 제주 교회의 역할

지도 김 영 동 교수

이 논문을 신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심 재 국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선교신학 전공

2016년 8월



심재국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 : 김영동 교수 _____ (인)

부심 : 변창욱 교수 _____ (인)

부심 : 정기묵 교수 _____ (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6년 8월



감사의 글

지금의 논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시인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주로 불러주신 이유를 이 논문 작성을 통해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지의 하나로 생각했던 제주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이들의 아픔과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게 되는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논문 지도를 해주신 김영동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 쉽게 오갈 수 없는 저의 형편을 아시고, 이메일을 통해 꼼꼼히 첨삭해 주시고 지도해주신 교수님의 배려로 제주 선교 주제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분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네 분의 목사님들은 저의 사역과 삶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주신 분들이시고 이번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신 분들입니다.

제주에 내려올 때에 저와 제 아내의 두 손을 잡고 기도해주신 동송교회 서정오 담임목사님께서서는 제 사역의 모델이십니다. 소신있고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한 사역을 항상 가르쳐주신 목사님, 저희 부부에게 제주에 선교사로 파송을 보냄을 받아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열심히 사역을 할 것을 당부하신 말씀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야 그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제주영락교회 원로이신 김정서 목사님께서서는 인품이 무엇인지 당신이 직접 행함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담임목사님으로 계실 때에 사역자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셨던 김정서 목사님 특유



의 리더십과 인품을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저의 청년 사역의 사수(射手)이셨던 현재 오키나와 교회 담임이신 곽용길 목사님께서서는 뜻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대학로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3년 1개월의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제자훈련과 건강한 청년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던 목사님, 더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립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주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현재 주원교회 담임이신 김대성 목사님께서서는 저를 청년 사역으로 인도해주신 분이십니다. 그 때에 제자훈련과 청년 리더 양육 등을 배웠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시절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사역 후 매주 사 주신 삼겹살의 추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 또한 중국 선교사로서 모범을 보여주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 유다운을 허락해주신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주에서 출생한 제주 출신 우리 아들 지우에게 항상 밤늦게 들어와서 놀아주지도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대신 부끄럽지 않는 아빠가 되도록 약속할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른 나이에 나에게 시집을 온 것도 부족해 대화할 벗과 아무도 없는 외로운 이곳에서 저의 사역을 뒷바라지 하고 있는 아내 유다운에게는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는 과분한 사람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끝으로, 여전히 꿈꾸는 아름다운 그대들, 제주영락교회 청년공동체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심재국



차 례

I. 서론	1
A. 문제의 제기와 연구 목적	1
B. 연구 방법	2
C. 연구 범위	3
II. 제주 선교의 역사와 의의(意義)	6
A. 제주 선교의 역사	6
1. 복음 수용 이전의 제주의 상황	6
2. 초기 천주교의 전파와 영향	7
3. 초기 개신교의 전파와 영향	10
4. 이기풍 목사 파송 이후의 제주 선교	15
B. 제주 선교의 의의(意義)	16
1. 최초의 해외 선교	16
2. 자립을 원칙으로 한 선교	18
3. 중국 산둥 선교에 영향을 끼침	19
III. 제주 선교의 진단	21
A. 전통문화와의 마찰	21
1. 민간신앙	21
2. 조상제사	25
3. 권당문화	26
4. 폐쇄성과 배타주의	29
B. 외부 요인으로 인한 제주 선교의 어려움	30
1. 천주교의 약진	31
2. 개신교의 정체기(停滯期)	34
3. ‘제주 4·3 사건’으로 인한 제주의 상처	37



4. 선교사의 잦은 교체와 육지 출신 목회자 배척	42
IV. 제주 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	44
A. 제주 문화의 이해와 협력	44
1. 민간신앙과 조상제사에 대한 이해와 추도예배로의 발전과 협력	45
2. 권당문화의 이해와 협력	49
B. 교육 선교 정책과 지역 사회와의 연대(連帶)	50
1. 교육 선교 정책	51
2. 지역 사회와의 연대(連帶)	53
C. 공격적인 선교 정책의 자제와 협력 선교의 모색	54
D. 제주 교회의 장기적 정책	55
V. 세계 선교의 주체로서의 제주 교회의 역할	57
A. 제주 선교의 비전	57
B.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는 세계 선교	58
C. ‘국제자유도시’의 장점을 활용하는 세계 선교	60
VI. 결론	63
A. 요약	63
B. 제언	64
참고문헌	67
부록	71



표 차례

<표1> 1907년 9월 17일 노회 설립 당시 회집한 회원	13
<표2> 제주 천주교 교세 증가	33
<표3> 대한민국 종교별 인구 비율	35
<표4> 제주도의 종교별 인구 현황	36
<표5> 2004-2007년 예장통합 제주 교회의 성장과 감소	36
<표6> 제주 감리교회 성장과 감소	36
<표7> 제주 4·3사건 순교자	41
<표8> 한국 교회의 기독교 학교	51
<표9> 제주 선교 포럼 현황	62

부 록 차 례

<부록1> 제주노회(통합) 해외 선교사 파송 현황	71
<부록2> 연도별 제주 관광객 현황	72



I. 서론

A. 문제의 제기와 연구 목적

한국 교회의 개신교 복음 전파에 있어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그것을 수용함에 있어서 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이었고,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기독교는 아시아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와 흐름 속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개신교 복음의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서 토착화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필자는 선교신학을 공부하던 중 교회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은 ‘선교적 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른 교회의 선교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또한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접하고 연구할 것을 판단하였다. 처음부터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를 위함이고, 에밀 부르너의 ‘불이 타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듯 교회의 존재 이유 역시 선교를 위함’이라는 주장처럼 교회의 선교 역할은 필연적인 목적일 것이다.¹⁾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그 역할에 있어서 과연 ‘선교적이었는가?’에 대한 자문이 생기게 되었고 그 역할에 대한 진단과 연구가 필요하고, 방향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막연하게 수많은 목회지 중 하나라고 여겼던 필자가 몸담고 있는 제주에 대한 선교적 접근과 정책의 필요성을 느꼈다. 제주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육지 교회들의 수많은 단기 선교와 제주 선교의 정책을 경험하면서 이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더 절실하게 다가왔다. 여전이 수많은 교회에서는 제주에 대한 선교적인 마음을 품고 있지만, 그 마음에 비해서 전문적인 전략과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교회는 제주 선교를 필두로 그 시작부터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왔다. 독노회 설립과 함께, 최초의 7명의 목사 안수자 중 1명인 이기풍 목사를 제주로 선교를 보낼 정도로 그 사명을 다하고자 했던 것이다.

1) Orlando E. Costas, *The integrity of Mission: The Inner Life and Outreach of the Church*, 진희근 역, 『통합적 선교신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2), 87쪽.



제주 선교 파송은 국내 선교의 개념이 아닌, 해외 선교로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최초의 해외파송지는 다름 아닌 제주도인 것이다. 지리적인 요건과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섬의 독특한 문화에서 기인된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도 그럴 것이 제주는 선교의 초기 역사부터 지금까지 복음화 비율이 가장 낮고, 육지의 다른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문화, 그리고 선교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역력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여전히 선교의 대상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1908년도에 처음 이기풍 목사가 제주에 도착한 이후 제주 선교의 역사도 이제 110년을 맞이하고 있다. 수많은 교회들이 제주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을 하고 있다. 해마다 여러 단기 봉사 팀들을 파송하여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훈련과 문화 적응에 따른 제주 선교에 대한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 선교는 육지에서 행하는 선교와 비슷한 범주로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다 원활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제주 선교의 방향과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 선교에 대한 고찰(考察)이 필요하고, 제주의 전통문화와 지금 제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지위나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의 위상 등을 고려하여 선교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초기 한국 교회는 자립하기에 이른 선교의 대상지였지만 제주를 선교의 대상지로 선정한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있었다. 초기 한국 교회가 선교지로서 제주를 어떻게 바라보며, 선교를 담당하였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제주 선교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제주 선교를 위한 제주 내(內)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의 역할과 선교의 주체로서의 제주 교회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한다.

B. 연구 방법

본 논문은 학위 논문과 단행본, 정기 간행물 등을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다. ‘제주 선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돕고자 신학 문헌을 포함하여 일반 문헌도 참고할 것이다. 최초의 제주 선교사인 이기풍 목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초기 독노회 때에 제주 선교를 결정한 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 선교에 관한 학위 논문과 독노회 회의록을 참고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기풍 목사의 선교 활동 이전에 제주의 복음화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주교 복음화율이 개신교보다 높게 집계되는 지역이 제주이기 때문에 천주교와 개신교의 제주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비교 한 후에 개신교가 가져야 할 선교 전략 등을 논의할 것이다. 천주교가 택한 조상제사와 민간신앙의 수용과 함께 교육이나 사회 참여 등의 간접 선교 등을 소개 하고, 이에 따른 개신교 선교 정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선교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종교별 인구현황을 살펴보고, 여러 문헌을 연구하여 천주교가 제주 내에서 차지하는 입지와 이에 따른 개신교의 선교적 대안과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주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제주의 대표적인 교회들의 역사 문헌과 관련자의 증언 등을 참고하여 초기 제주 선교 및 근현대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주 선교의 입지 등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제주 선교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자료라 할 수 있는 제주노회에서 발간한 『제주기독교100년사』라는 단행본을 참고하여 선교 초기 제주 교회와 복음화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선교의 주체로서 제주 교회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 제주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장점을 지정학적 위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제자유도시로서 도시 기능을 활용한 선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문헌과 자료, 통계 등을 통해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선교로의 접목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외부 유입 인구의 증가와 함께 토착 주민 사이에서 제주 교회의 ‘선교적 교회’의 역할에 대해 조명하고 세계 선교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을 제주 교회의 세계 선교의 역사와 현황, 변천의 과정 등을 통해서 살펴보고, 제주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C. 연구 범위

본 논문에서는 제주 선교를 연구함에 있어서 개신교 뿐만 아니라 천주교의 역사도 포함한다. 따라서 제주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천주교 복음 전파의 역사도 함께 살펴보게 된다.

제주 선교 역사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광범위 하고 여러 문헌 자료 및



관련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의 취지에 맞도록 편중되지 않게 다루고자 한다. 세부적인 연대 조사 보다는 큰 범주로서 제주 선교 전후의 상황, 한국 교회 독노회 조직과 그에 따른 이기풍 목사의 제주 선교사 파송, 이기풍 목사 이후의 제주 선교 등을 언급한다. 선교 초기의 역사와 이기풍의 선교 파송, 이기풍의 파송 이후의 제주 선교 등은 다루지만, 이후의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산업화에 이르는 과정은 세부적인 변천사를 설명하기보다 논지에 맞게 언급하도록 한다. ‘제주 4·3사건’의 경우, 한국전쟁처럼 육지와 함께 온 나라가 겪은 일이 아닌 제주가 가진 특수한 역사이므로 별도로 다루도록 한다.

제주 선교를 진단하기 위해 제주가 가진 독특한 문화 양식을 언급한다. 이를테면 권당문화, 민간신앙, 조상제사 등을 통해 제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사고방식, 그에 따른 선교의 어려움 등을 조명한다. 또한 이들이 가지고 정체성과 배타성으로 인한 제주 선교의 어려움을 함께 언급한다.

개신교 선교의 어려움과 반대로 천주교 선교는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천주교 선교 정책을 언급하여 개신교가 갖추어야 할 제주 선교의 대안을 찾고자 한다.

제주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 민간신앙과 조상제사를 포함한 제주 전통문화의 이해와 지역 사회와 연대, 육지와 제주 교회의 협력 사역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선교의 주체로서 제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 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민간신앙과 조상제사에 대해 제주 교회가 수용해야 할 부분과 타협해야 할 부분, 그리고 민간신앙과 조상제를 ‘추모예배’로 전환하고 발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이들의 삶과 정서에 대한 교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선교 전략을 제시한다.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제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힘을 쏟은 것처럼, 이제 제주가 그 역할을 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그 역할에 대해서 언급한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모달리티(Modality)와 소달리티(Sodality)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 것처럼, 한국 교회는 그 역할에 있어서 모이는 모달리티 교회의 입장에서 흩어지는 소달리티 교회의 차원으로 제주 선교를 진행한 것을 예로 든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주 교회가 지금까지 모달리티 교회의 역할로서 성장해왔다면, 이제는 소달리티 교회의 역할로서 세계 선교에 앞



장 서는 역할을 해야 하는 점을 부각시킨다.

‘국제자유도시’라는 행정적인 장점을 활용한 미래 선교 방안을 제시하며, 실제로 그 움직임이 시작된 ‘제주 선교 포럼’과 같은 제주 선교 비전을 위해 진행되는 조직을 소개한다. 또한 동남아와 중국, 일본, 태평양 등 세계의 길목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함께 맞물려서 미래의 선교적 거점이 될 수 있는 제주 선교의 비전을 소개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을 제시한다.



II. 제주 선교의 역사와 의의(意義)

A. 제주 선교의 역사

1. 복음 수용 이전의 제주의 상황

『제주기독교100년사』는 “제주도²⁾는 옛날부터 물난리가 자주 일어나고, 가뭄도 많고,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이 좋지 않은 삼재(三災)³⁾의 섬이라고 하였다. 척박한 자연환경에 외지인이 적응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제주도에 대한 설명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부 문화가 제주에 정착 혹은 수용되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친 융합을 필요로 했고, 기독교 복음 역시 마찬가지로 과정을 거쳐야 했다.⁴⁾

이러한 환경과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와 달리 독특한 생존양식과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1893년 1월에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제주도를 선교 구역으로 정하였지만, 선교사의 인력과 재정의 부족, 그리고 교통의 불편 때문에 본격적인 선교 활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⁵⁾

제주도는 국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속해 있으면서도,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수성, 교통과 통신의 불편함으로 인해 본토와 떨어져 쉽게 왕래할 수 없는 고립된 지역이라는 조건에 놓여있었다.⁶⁾ 제주 복음화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은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제주도는 예로부터 탁라(毛羅: 풀로 짠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는 곳), 혹은耽羅(탐라: 깊고 먼 바다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제주(濟州: 바다를 건너가는 고을)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제주라는 이름은 고려 충렬왕 21년, 1295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김봉옥, 『제주통사』(제주: 제주문화, 1987), 21-30쪽.

3) 화산섬이라는 특성상 수재(水災), 한재(旱災), 풍재(風災)가 많아 세 가지 재해의 섬이라 불린다.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 제주문화, 1990), 15쪽.

4)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서울: 쿤란출판사, 2016), 14쪽.

5) 위의 책, 14-15쪽.

6) 고민희, “제주도 초기 교회 형성과정 연구: 이도종의 생애와 목회활동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12), 32쪽.



2. 초기 천주교의 전파와 영향

a. 천주교의 복음 전파와 수용

김봉옥은 “제주에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886년 프랑스와의 조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 신앙의 자유를 얻어 뫼텔(Mutet) 주교 시대에 이르러 189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⁷⁾고 언급하며 천주교 복음 전파의 시작을 1899년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어서 “광무 2년(1898년)에 다른 지방에서 입교한 중문면 색달리 사람 양베드로와 신아오스딩, 그리고 보성리 사람 강도비아 김생원이 당시 조선교구장 뫼텔 주교에게 제주에도 선교사를 파견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⁸⁾고 언급한다.

그러나 천주교측 기록에 의하면 뫼텔 이전에도 몇몇 천주교 교인들이 이미 있었음이 보고가 되기도 한다.⁹⁾

제주 지역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알려진 것은 1801년에 발생한 신유박해 때 이다. 신유박해 때 체포된 황사영의 부인 정난주(마리아)는 당시 유배지 중에서도 가장 먼 지역이었던 제주도로 유배를 오게 되었고 이들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제주 본당 제 2대 주임으로 부임하였던 라크루(M. Lacroux) 신부에 의해서이다. 라크루는 추자도를 방문했다가 황사영의 아들인 황경환의 손자를 만나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샤르즈보프(E. Chargeboeuf) 신부에게 순교자 황사영과 황경환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을 서한으로 보낸다.¹⁰⁾

라크루는 황사영¹¹⁾ 일가의 복음 수용을 보며 제주 선교에 대한 희망을

7)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 제주문화, 1990), 189쪽.

8) 위의 책, 189쪽.

9) 서정민, “기독교 선교가 제주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 『신학논단』 제28권(2000. 10), 176쪽.

10) 고민희, “제주도 초기 교회 형성과정 연구: 이도종의 생애와 목회활동을 중심으로,” 29쪽.

11) 정난주(마리아)는 1773년 정약현의 딸로 태어났는데, 실학자 정약전, 정약중, 정약용의 형제가 그녀의 숙부들이었고 어머니는 이벽의 누이였다. 황사영과 혼인하여 1800년에 아들 경환을 낳았다. 남편인 황사영은 1775년에 태어나 17세에 복시에 장원급제하여 정조로부터 칭찬과 학비를 받은 매우 영특한 인재였으나 천주교를 믿음으로 현세적 명리에는 등을 돌렸다. 중국인 신부 주문모에게 세례를 받은 그는 전교에 전력하다가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충북 제천의 배론으로 피신하여 이른바 백서(帛書)를 썼다. 박해의 실상을 기술한 이 백서는 발송되기 직전에 발각되었다. 황사영은 대역 죄인으로 체포되고, 능지처참으로 순교하였다. 제주에 유배된 정난주(마



품게 된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와 고통을 당하며 참았던 이 일가를 보고 불행하게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샤르즈뵈프에게 보내기도 하였다.¹²⁾

프랑스 선교사들의 입국과 선교 활동은 계속 되었다. 1886년 6월 4일에 한불조약(韓佛條約)이 체결되었고, 이듬해 5월 31일부터 비준이 되어서 효력이 발생하였다.¹³⁾ 그리고 전국적으로 천주교 본당이 설립이 되었다. 이 영향이 제주까지 미치게 된 것이다. 뫼텔 주교는 1899년에 제주도에도 선교사를 파견할 것을 결정한다. 유흥열은 “이들이 임명된 1899년 4월 22일을 ‘제주 본당의 설립일’¹⁴⁾이라고 보고 있다.

공식적인 천주교 복음 전파의 시작은 1899년 이지만, 제주에 본당이 설립되기에 앞서서 제주도에는 이미 많은 신자와 선교사들이 육지를 오고가며 신앙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제주라는 섬 지역의 특색과 현지 주민들의 사고방식이 새로운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았지만,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개종자는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신축(辛丑)년에 민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901년에는 영세자가 242명, 그리고 예비신자도 6-7백여 명으로 급증하게 되었다.¹⁵⁾ 천주교 교세 확장의 원인은 당시의 상황이 직면한 문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은렬은 “제주도민들의 마음 속에 권력층에 대한 원망과 반항이 있었고, 부패와 탐관오리가 만연했던 당시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자리잡았던 것”¹⁶⁾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이런 상황에서 천주교가 처음 전파되기 시작하자,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평등한 입장에서 대우해 주는 것에 감격하여 입교를 하고, 또한 봉건적인 억압과 인습에서

리아)는 관비의 쓰라린 유배 생활을 시작하였다.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15쪽.

12) 라크루 신부의 1910년 7월 17일자 연말보고서, 『초기 성직자들의 서한(1)-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3집(제주: 천주교 제주교구, 1997), 253쪽. 고민희, “제주도 초기 교회 형성과정 연구: 이도종의 생애와 목회활동을 중심으로,” 29쪽에서 재인용.

13) 고민희, “제주도 초기 교회 형성과정 연구: 이도종의 생애와 목회활동을 중심으로,” 32쪽.

14) 유흥열, 『한국천주교회사』, 하(서울: 가톨릭출판사, 1981), 364쪽. 고민희, 위의 책, 32쪽에서 재인용.

15) 박장래, “이기풍 선교사의 제주 선교 초기활동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1997), 17쪽.

16) 정은렬, “통전적 선교신학에서 바라본 제주 선교”(석사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8), 31쪽.



해방되고 구원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경향이 있었다.”¹⁷⁾고 당시 천주교 선교를 설명한다.

천주교의 복음 전파는 종교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당시의 여러 정치적인 갈등과 신분의 억압,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와 문화적 상황 속에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탈출구’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들에게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b. 초기 천주교의 영향

초기 천주교의 선교는 그 기간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보이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주도 사람들의 일종의 ‘탈출구’로서의 역할이 있었고, 선교사에게 있었던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일종의 ‘힘’에 대한 유착관계가 있었다. ‘신축년 사건’으로 보아 천주교의 ‘힘과 권력’을 발견한 일부 순수하지 못한 세력이 세속적인 목적으로 교회로 들어오고, 이것은 전통적인 종교문화적 배경과 복합이 되어서 외부세력과 토착세력의 갈등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¹⁸⁾ 외적으로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 같으나 실상은 부실함과 역작용이 있었다. 기독교가 정치력, 경제력, 교권 등을 동원하여 결국에는 비선교적 내지는 반선교적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는 중세 시대의 ‘십자군 운동’과도 비슷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서정민은 초기 천주교의 선교 정책에 있어서 “제주의 초기 천주교사는 민족토착 세력과의 제휴 실패, 조세나 치안 행정 등과 같은 지방 정치의 진행과 충분한 단절을 이루지 못한 ‘정교유착’의 단면을 보였다.”고 말하면서 외국의 세력을 제주 문제에 끌이는 과정을 보였던 것에 대해 아쉬운 입장을 피력한다.²⁰⁾

초기 천주교의 선교는 큰 성과를 보이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되었다. 이는 몇 년 뒤 이어지는 개신교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17) 위 논문, 31쪽.

18) 서정민, “기독교 선교가 제주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 176쪽.

19) 정은렬, “통전적 선교신학에서 바라본 제주 선교,” 36쪽.

20) 서정민, “기독교 선교가 제주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 179쪽.



3. 초기 개신교의 전파와 영향

1893년 1월,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제주도를 선교 구역으로 정하였다. 하지만 선교사 인력과 재정의 부족, 그리고 교통의 불편으로 인하여 제주도에 대한 본격적인 선교에 착수하지는 못하였다. 15년이 지난 후 1908년 한국 교회가 이기풍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였고, 제주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²¹⁾

a. 선교사 파송 이전의 신앙 공동체와 초기 개신교 제주 선교

1908년 독노회 파송 선교사로 이기풍 목사가 제주로 파송이 되면서 공식적인 제주 선교가 시작되었지만, 이미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신앙을 유지하려 했던 신앙공동체를 통한 복음 전파의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박정환은 이러한 신앙공동체를 ‘자생적 신앙공동체’라고 부른다. 그는 이어서 “이들 자생적 신앙 공동체는 점차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역자가 필요하게 되자, 평신도로서는 교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파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한다.²²⁾ 이러한 요청에 맞물려서 1907년 독노회에서 이기풍 목사가 제주 선교사로 선택이 되었고, 1908년 2월 제주도에 도착한 것이다.²³⁾

이기풍 목사 파송 이전의 이러한 신앙 공동체에는 이들만의 특징이 있다. 먼저 현지인들이 주도적으로 모임을 이끌다가 선교사들과 합류하여 처음 교회들을 이루게 된 것이고, 또 다른 특징은 천주교의 선교 활동이 펼쳐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들 개신교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²⁴⁾ 1908년 2월 이기풍 목사가 제주에 입도(入島)할 때에는 제주도에 이미 현지들을 중심으로 하는 개신교 자생적 신앙공동체가 있었던 것이다.²⁵⁾

아펜젤러 선교사의 학당에서 공부한 제주 출신의 장지영의 경우도 살펴볼 수 있다. 『제주기독교100년사』에 의하면 1886년 12월 11일자 아펜젤러 일

21)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14-15쪽.

22) 박정환, “제주도 개신교 자생적 신앙공동체의 생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 1904~1930”(박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3), 90-91쪽.

23) 위 논문, 91쪽.

24) 위 논문, 98쪽.

25) 위 논문, 133쪽.



기에 “『신앙』이라는 소책자를 주면서 복음전도 사역을 제주도에서 온 장지영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남아있으며 장지영은 제주 출신으로서 어려움을 잘 참고 매우 총명했던 사람으로 평가된다.²⁶⁾

이 외에 제주와 육지를 오가며 단기 선교 및 선교지 탐방 등을 통해서 꾸준히 제주에 문을 두드린 경우가 있다. 선교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대표적인 사람은 성서공회에 소속된 전라도와 충청도를 담당했던 권서인 피터슨(A. A. Pieters)과 대영성서공회 책임자 켄뮤어(Alexander Kenmure)였다. 1899년 피터슨은 켄뮤어와 함께 제주도를 다녀온 후 그의 선교 여행을 글로 남기기도 했다.²⁷⁾ 또한 제주에 방문하지 않았지만, 항구전도 및 순회전도 등을 통해 선교 활동을 한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1890년부터 베어드(William M. Baird, 배위량) 선교사는 부산에서 자신의 거처에 사랑방을 마련하고 전도자들과 손님들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한 기록이 있다.²⁸⁾

제주 교회가 출발할 당시에 제주는 인구 10여 만이 사는 작은 지역이었다. ‘전주, 남원, 나주, 제주’로 이루어진 전라도의 행정 중심지 4개의 목(牧) 가운데 하나로 많은 정치인들의 유배지이기도 하였다. 육지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언어, 풍습, 문화 등에 차이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과제였다.²⁹⁾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먼저 수용했던 사람들과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부분들은 1908년부터 시작되었던 본격적인 제주 선교에 있어서 큰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다.

b. 이기풍 목사의 제주 선교사 파송

1905-1907년 사이의 성령대부흥운동³⁰⁾은 기존의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26)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18-19쪽.

27) 위의 책, 19쪽.

28) 1893년 9월 11일자 일지에는 “남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제주도에서 온 장님”의 방문이 기록되어 있다. 위의 책, 19쪽.

29) 위의 책, 48쪽.

30) 한국 교회의 성령대부흥운동은 1903년부터 1910년까지 지속된, 주로 한강 이북지방에서 전개된 운동이었다. 그렇지만 이 기간에 한국은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국가적으로는 일본과 러시아의 전투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1904년부터 일본 정부가 지명하는



는 신앙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계기와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분수령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³¹⁾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믿는 성도들이 들끓이 자라나듯이 부흥하였고, 이에 따라 공의회가 필요하게 되었다.³²⁾ 그리고 1907년 6월 20일에 평양선교부 신학반은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졸업생은 길선주, 방기창, 송인서, 한석진, 이기풍, 양전백, 서경조이다.³³⁾ 이제 이들이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목사를 안수해서 세울 수 있는 치리회는 노회 밖에는 없었다. 교회의 부흥과, 7명의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는 신학생들에 대한 목사 안수 등의 이유에 따라 한국 교회는 공의회 성격의 제1회 독노회(獨老會)를 설립하게 되었다.³⁴⁾

1907년 9월 17일, 한국 교회는 제1회 독노회 설립과 함께 제주로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하였다. 한국 교회는 1907년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하면서 일곱 명밖에 없는 적은 숫자의 한국인 목사 중 한 명인 이기풍을 제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결단을 했다.³⁵⁾

노회 설립 당시의 교세와 선교 활동을 살펴보면 북장로회 선교사들은 서울을 포함한 이북 지역과 경상도 지역에서 크게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문관이 한국의 각 부처에 상주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주권을 잃게 되었다. 1905년 11월에는 을사늑약으로 한국이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헤이그 밀사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오히려 빌미삼아 일본은 1907년에 한국과 ‘정미 7조약’을 맺고 고종을 퇴위시킨 후 순종을 등극시킴으로써 한국은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1908년에 일본은 1904년부터 원하던 서해안의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황무지 개간권’을 확보함으로써 곧바로 한국의 곳곳에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들어서서 전 국토에 대한 토지조사를 벌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성령대부흥운동이 1903년 8월 원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05년에는 평양, 서울, 경기지방으로, 그리고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성령대부흥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1910년에는 ‘백만명구령운동’으로 끝을 맺었다.

이렇게 한국의 국가적 운명이 중지부를 찍을 무렵에 한국 교계에서는 성령 대부흥운동이 일기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주기 시작하였다. 제주도에 대한 선교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때였다. 따라서 제주도 선교는 성령대부흥운동의 결실이며, 동시에 새롭게 조직된 신생 한국 교회가 낳은 새 생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30쪽.

31) 위의 책, 31쪽.

32) 민경운, “제주와 산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4), 23쪽.

33) 위 논문, 34쪽.

34) 위 논문, 25-26쪽.

35) 민경운, “제주와 산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 2쪽.



<표1> 1907년 9월 17일 노회 설립 당시 회집한 회원³⁶⁾

선교사				한국인 장로	
선교회별		근무지역별		출신지역별	
북장로회	24	평안도	10	평안도	17
남장로회	6	서울	9	함경도	2
캐나다 장로회	2	함경도	2	황해도	5
호주 장로회	1	경상도	6	서울/경기	3
		전라도	6	경상도	4
				전라도	7
	33명		33명		38명

원산도와 평양을 기점으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을 비롯해서 1907년 까지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수도권과 이북에 그 숫자가 편중된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북에 편중된 회원의 수는 한국인 장로의 경우를 보면 더욱 뚜렷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초기 이북 중심의 교세는 목사 임직을 받은 7명의 신학사들의 사역지를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다. 신학 졸업생 7명에 대한 문답을 통하여 저녁 7시에 회집한 예배에서 이들에게 안수례를 통한 목사 임직식을 거행함으로써 한국 교회에서 최초로 한국인 장로교 목회자 7명이 탄생하였다. 이들에게 맡겨진 일은 다음과 같다.³⁷⁾

1. 새로 장립한 목사 7인 중 1인을 선교사로 파송할 일
2. 이기풍 씨를 제주 선교사로 보내되 월급은 전도국에서 지출할 일
3. 방기창 씨는 용강, 제재, 주달교회의 전도목사로 정할 일
4. 한석진 씨는 평양, 장전, 미림, 이천교회의 전도목사로 정할 일
5. 송인서 씨는 증산, 한천, 회서장, 영유, 허리물교회의 전도목사로 정할 일
6. 길선주 씨는 평양 장대재 지교회 목사로 정할 일
7. 양전백 씨는 선천, 정주, 박천 등지에 위대모 목사와 같이 전도목사로 정할 일
8. 서경조 씨는 장연, 용진 등지에 사우업 목사와 같이 전도목사로 정할 일

36)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35쪽.

37)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독노회록(1907)』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80), 18-19쪽.



7명의 졸업생 가운데에서 이기풍은 제주의 선교사로 보내지게 되었고, 길선주는 평양 장대현교회의 담임목사로 가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각각 해당 지역의 전도목사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1907년도의 독노회의 최대 관심사는 전도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만 그 것이 이복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이다.³⁸⁾

제주 지역에는 단 한 명의 회원도 없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비록 하나의 유일한 노회였지만, 1912년 총회가 조직되기도 이전에 독노회로서 일곱 명의 목사 중 한 명을 제주에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그만큼 제주 선교의 절실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곽안련은 “1907년에 한국 교회가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하면서 제주에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장로교회는 설립이 된 때부터 특별히 1907년도에 자치적이며 독립적인 교회로서 노회가 설립된 이후로 거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조직이었다.”³⁹⁾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기풍은 1907년 제1회 독노회를 통해 제주 선교사 파송이 결정되어서 이듬해부터 제주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제주에는 1908년 2월 말 혹은 3월 초순에 도착하여 사역하기 시작한 이래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다.⁴⁰⁾

사실 이기풍 목사의 선교 사역은 순탄하게 시작되지는 않았다. 1899년에 있었던 신축교란으로 거칠어진 민심은 서양 종교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기풍 목사는 수많은 어려움과 굶주림 속에서도 제주 선교에 온 힘을 쏟았다.⁴¹⁾ 그 결실로 이기풍 목사의 선교 첫 해인, 1908년 독노회로부터 제주도에 파송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원입인 9명, 주일출석 20명이라는 선교 결과가 보고되었다.⁴²⁾

38)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36쪽.

39) 민경운, “제주와 산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 38쪽.

40)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91쪽.

41) 김건수, “21세기 제주도 선교 전략 및 전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2009), 43쪽.

42) 박용규, 『제주 기독교회사』,(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148쪽.



4. 이기풍 목사 파송 이후의 제주 선교

이기풍의 파송으로 촉발된 선교 정신은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적지 않은 도전을 주었다. 독노회와 한국 교회는 또한 장기적·단기적으로 제주에서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다른 목회자들을 파송했다. 박용규는 “1908년 평양시내 여성 교우들은 제주도의 여성 사역을 위해 이선광 여전도사를 파송하였고, 1909년에는 평양 숭실대학과 숭실 중학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선교비를 모금하여 동료 숭실 대학생 김형제를 파송하여 이기풍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하면서 제주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 여성 교우들의 활동을 설명한다.⁴³⁾

이기풍 목사의 제주 선교 파송은 이후 제주 지역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에 걸쳐서 그 영향이 발휘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주 선교는 한국 교회의 선교의 물결을 촉진시켰고, 그 한국 교회는 다시 제주 선교를 위해 큰 힘을 쏟게 되는 ‘상생(相生)효과’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 이후 제주에는 1908년에는 성내교회, 금성교회, 삼양교회가 1909년에는 조천교회와 성읍교회가 1910년에는 모슬포교회가, 1913년에는 용수교회가 1914년에는 중문교회가 설립되었다. 이 교회들은 현지 교인들과 이기풍 목사, 그리고 외지인 전도자들의 긴밀한 협력에 의한 복음 전파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⁴⁴⁾

이기풍 목사는 1915년에 제주를 떠나게 된다. 이기풍 목사가 제주를 떠난 것은 제주 선교와 제주 교회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지만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다.⁴⁵⁾ 단순한 ‘선교지’라는 차원을 넘어서 제주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제주 선교는 육지와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겪으며 부흥과 격동의 시기를 함께 맞이하게 된다. 1919년 ‘삼일독립운동’으로 개 교회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구속된 자들도 무수했다. 때문에 당시로서는 막대한

43) 위의 책, 148쪽.

44) 박정환, “제주도 개신교 자생적 신앙공동체의 생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 1904~1930,” 192쪽.

45) 박용규, 『제주 기독교회사』, 187쪽.



선교비를 모금하여 보낸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었다. 제주 파송 선교사들의 경우 사례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그 어려움은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각 노회에서는 구속된 사역자들의 사례나 밀린 사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헌신적인 지원에 힘입어 제주 선교는 꾸준하게 확장되었다.⁴⁶⁾

당시 갓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은 한국 교회가 복음의 불모지 제주 선교를 전담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강력한 국력과 엄청난 선교비를 쏟아 부었던 천주교 제주 선교와 비교할 때 기독교 제주 선교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것은 마치 말구유에 오신 주님의 모습과도 같았다. 군함까지 동원하며 호위를 받았던 천주교 선교의 모습과 전혀 달랐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던 것처럼 제주 선교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인이며 주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⁴⁷⁾

개신교의 제주 선교는 막대한 자본과 정치력을 앞세운 천주교의 선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려 했고, 제주 선교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려고 한 노력은 지금의 제주 선교와 제주 교회가 있게 된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B. 제주 선교의 의의(意義)

1. 최초의 해외 선교

우선 제주 선교의 의의에 있어서 최초의 해외 선교의 범위를 이기풍의 파송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제주 선교 시작 이전에 자생적인 공동체가 이미 있었고, 이기풍의 파송 전에 많은 단기 선교단의 선교와 순회 선교단의 활동이 있었지만, 한국 교회에 있어서 공식적인 파송을 그 범위로 좁히고자 한다.

민경운은 “한국 교회는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하면서 이기풍을 ‘해외 선교사’라고 하면서 제주로 파송하였다.”고 말하면서 이기풍을 해외 선교사로 정의하고 있다.⁴⁸⁾ 이기풍을 제주로 파송한 것을 그 당시 한국 교회는 해외 선교로 인

46) 위의 책, 215-16쪽.

47) 위의 책, 227쪽.



식했던 것이다.

제주 선교를 해외 선교로 보아야 하느냐는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광안련도 “산동 선교(a real Foreign Mission work)가 진정한 해외 선교 사역”⁴⁹⁾이라고 한다. 하지만 제주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독특한 문화와 전통, 제사의식 등으로 미루어볼 때 제주 선교를 ‘유사문화(類似文化)’의 선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당시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는 미국 선교사들은 제주 선교를 해외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⁵⁰⁾ 선교사들은 제주를 해외 선교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먼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제주 선교를 해외 선교로 말하기도 하는데, 선교사들이 느끼기에는 그 당시 제주도는 미국보다도 더 멀리 위치해 보이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같은 한국에 속하지만 본 대륙과의 접촉이 적었고, 육지와 달리 기독교의 선교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⁵¹⁾

안교성은 “한국 교회의 선교의 기원을 어디로 잡아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주 선교를 한국 교회의 선교의 기원으로 삼으려고 하는 주장 중에 하나는 제주 선교는 한국 교회의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진 선교이기 때문”⁵²⁾이라고 말하며 변창욱의 주장을 소개를 한다. 변창욱은 “한국 교회가 1902년 인천 내리 감리교회의 하와이 선교는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진 제주 선교를 한국 교회의 선교의 기원으로 보아야 한다.”⁵³⁾고 주장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첫 번째 해외 선교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제주 선교는 한국 교회의 역사와 그 시작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⁵⁴⁾

48) 민경운, 『제주와 산동선교 이야기』, 47쪽.

49) 위의 책, 36쪽.

50) 김성환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제주도에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의 영향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가장 강력한 뒷받침이 바로 제주도를 외국의 영역으로 보았다는 점으로 조선인들에게는 불가능한 발상이었다고 한다. 민경운, 『제주와 산동선교 이야기』, 36쪽에서 재인용.

51) 광안련, 『한국 교회와 네비우스 선교 정책』(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91쪽.

52) 안교성, “한국 교회 선교의 기원에 관한 소고: 제주 선교와 이기풍 선교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선교KMQ』 Vol.9 No.1 통권31호(2009, 가을), 84쪽.

53) 변창욱, “한국 장로교회 선교사 파송 100년(1907-1956),” 『선교와 신학』 제19집(2007, 봄), 15-16쪽.

54) 김전수, “21세기 제주도 선교 전략 및 전망에 관한 연구,” 52쪽.



2. 자립을 원칙으로 한 선교

제주 선교는 한국인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인에 의한 한국 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제주 선교는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정착할 수 있는 기폭제의 역할을 한 것이다. 천주교의 선교는 처음부터 선교사 주도의 사역이었다. 재정 지원 역시 외국 선교부에서 담당하였다. 비록 개신교는 그 상황이 힘들었지만 자체적인 부담을 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신교 제주 선교는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의 선교였다.’⁵⁵⁾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하면서 제주로 이기풍을 파송한데에는 분명한 한국 교회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⁵⁶⁾

서정민은 한국 교회가 제주 선교에 있어서 자립성을 지킨 것에 있어서 “처음부터 서양 선교사의 역할이나 관할이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그는 이어서 “제주의 프로테스탄트 선교야말로 그 직접적인 과정에서는 철저히 한국인 스스로에 의한 토착전도와 토착정착의 특색을 지녔다. 여기에는 제주 선교의 지리적, 문화 환경적 어려움에 대한 선교사들의 기피논리도 미루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서정민은 “이미 언급한 근대 가톨릭의 제주 선교에 대한 실패전적에 대한 차별화,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문화적 풍토로 볼 때 한국인 자신들에 의한 선교 활동이 거둘 수 있는 효력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으리라는 선교정책적 판단 등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⁵⁷⁾고 말하면서 제주 선교의 자립성을 분석하고 있다.

제주 선교를 위한 조직은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기동성이 있었다. 민경운은 “제주 선교를 위한 선교비 후원 창구는 독노회 전도국으로 일원화되어 있었다.”고 언급한다. 그 정도로 독노회 전도국은 선교사의 인선, 선교비 모금과 후원, 후속 선교 인력 파송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을 했다. 제주 선교사는 전도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매년 노회 회기(會期) 때마다 사역 보고 등을 하였다.⁵⁸⁾

제주에는 외국 선교회의 선교지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55) 박용규, 『제주 기독교회사』, 228-229쪽.

56) 민경운, 『제주와 산동선교 이야기』, 41쪽.

57) 서정민, “기독교 선교가 제주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 182쪽.

58) 변창욱, “한국 장로교회 선교사 파송 100년(1907-1956),” 22쪽.



상대적으로 병원이나 학교의 설립이 더딜 수 밖에 없었다. 이와 반대로 천주교의 경우에는 제주를 외국 선교회의 선교지로 보았기 때문에 개신교보다 앞서서 교육과 의료시설 등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립하는 교회의 개념을 제주에 심어주게 되어 박해와 가난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⁵⁹⁾

3. 중국 산동 선교에 영향을 끼침

제1회 독노회에서 이기풍을 제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한 1907년으로부터 5년 후, 1912년 9월 1일에 개최된 제1회 총회에서는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게 된다. 그리고 이듬해인 1913년에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세 사람을 중국 산동으로 파송한다. 중국 산동 선교의 파송은 제주로 이기풍을 선교사로 보낸 6년 후가 된다. 제주로 이기풍을 파송한 후 그 직후 선교사를 파송한 지역이 바로 중국 산동 지역이라는 점에 있어서 제주 선교는 중국 산동 지역 선교에 있어서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하고 있다. 총회와 노회는 엄밀히 차이가 있지만, 제1회 독노회는 그 당시 1개의 노회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구의 총회 성격의 노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는 그 시기적으로도 6년의 차이가 났지만, 민경운은 이것을 “릴레이에서 앞서 달린 선수와 그 바통을 이어받은 그 다음 선수와도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⁶⁰⁾ 그는 이어서 “제주 선교는 산동 선교를 이어주는 텃줄과 같다. 제주 선교가 해외 선교의 시작이었다면 산동 선교는 그 텃줄을 타고 진정한 해외 선교로 자란 아이와 같다. 따라서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는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에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⁶¹⁾고 말한다. 이 정도로 제주 선교는 산동 선교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주 선교를 통해 한국 교회는 선교의 주체로서의 그 영향력을 선교 초기부터 이미 발휘하고 있었고, 본 논문에서 다룰 제주 교회의 선교의 역할과도 연관이 있다.

변창욱은 “한국 선교 역사에서 제주 선교가 국내에서 시도된 첫 번째 타

59) 박용규, 『제주 기독교회사』, 666-667쪽.

60) 민경운, 『제주와 산동선교 이야기』, 31-33쪽.

61) 위의 책, 34-35쪽.



문화권 선교였다면, 한국 교회가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한 첫 번째 예는 산동성이었다.”고 말한다. 산동 선교는 한국 교회의 최초의 타문화권 선교라는 점에서 제주 선교와 비슷한 점이 많고 이 것은 제주 선교의 영향이 산동 선교에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동 선교 역시 외국의 선교 자금의 도움 없이 모두 순수하게 한국 교회 자력으로 선교 인력과 재정 등을 조달한 선교 사역이었다는 점에서 제주 선교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⁶²⁾ 제주 선교는 중국 산동 선교에 있어서도 좋은 본보기와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62) 변창욱, “한국 장로교회 선교사 파송 100년(1907-1956),” 24-32쪽.



III. 제주 선교의 진단

A. 전통문화와의 마찰

1. 민간신앙

a. 제주도의 민간신앙

우리가 흔히 ‘종교’라고 부를 때는 제도종교⁶³⁾를 가리키는데, 민간신앙은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억지로 종교의 범주로 넣을 때에는 ‘미신(迷信)’이라고 불려왔다. 그러던 것을 민속학자들이 민간신앙(folk religion)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 민간신앙이라는 것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 유교 같은 제도종교와 대비되는 개념이다.⁶⁴⁾

제주에는 수많은 미신과 무속 신앙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바닷가 마을의 민간신앙은 그 종류와 성격 또한 마을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문무병은 그 한 예로 “어부들은 해상의 안전을 위하여 당에 가서 초하루 보름날 새벽에 선왕을 위한 당제를 지낸 다음, 배에 가서 풍어를 위한 뱃고사를 한다.”⁶⁵⁾고 말한다.

또 다른 예로 제주도 사람들은 아이가 크게 놀랐을 때, 나무에서 떨어졌거나, 우물에서 빠졌다 나왔거나, 물에 빠졌다 건졌을 때 녀들이 의례를 해 왔다. 요즘에는 자동차에 치었을 경우에도 녀들이를 하는 형태로 전이(轉移)되었다.⁶⁶⁾ 현대문명이 발달을 하더라도,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민간신앙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다.

하순애는 “제주도는 민간신앙의 내용이나 민간신앙에 밀착된 정도에서 한국 민간신앙의 일반적 양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민간신앙이 지역 사회마다 그 특징과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주도는 일반적인

63) 종교 지도자의 재생산구조와 지도자와 일반 신도의 결합구조가 공식조직(formal organization)의 형태를 띠게 될 때, 보통 ‘종교’라고 이름 붙인다. 조성윤, 이상철, 하순애, 『제주 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서울: 백산서당, 2003), 15쪽.

64) 위의 책, 15-16쪽.

65) 문무병, “민속-제주도 바닷가와 민간신앙” 『어항』 여름호(한국어촌어항협회, 2007), 24쪽.

66) 조성윤, 이상철, 하순애,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14쪽.



지역적인 특징과 변수의 수준을 넘어서는 ‘제주도만의 특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제주도의 민간신앙은 최근까지 지역민의 종교로서 그 생활 세계를 지배해 왔고 현재에도 그 영향력의 범위가 아주 넓게 잔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는 두드러지는 차별성을 보인다.”고 주장하며 제주 지역에 346개의 당이 존재한다는 것부터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덧붙여 설명한다. 또한 전승되어 내려오는 무가(巫歌)의 수만 해도 500여편인데, 이러한 방대한 양의 무가가 근래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앙 내지 민간신앙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민간신앙은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육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띄고, 이 민간신앙은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⁶⁷⁾

또한 하순애는 “제주도는 자연마을마다 마을 수호신을 모신 본향당 외에 마을 주민의 삶과 관련된 서로 다른 기능을 분할하고 있는 당이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예로 ‘일뤼당, 여드렛당, 산신당, 개당’ 등을 언급한다.⁶⁸⁾ 제주도의 당신앙의 특성 중 하나가 한 마을에 10여 개의 당이 존재 할 정도로 민간신앙은 제주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몸에 베인’ 삶과 생활인 것이다.

조성윤은 제주 사회에 대해 언급함에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무속이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일상적인 삶의 기반이 되어 있는 지역 사회”⁶⁹⁾라고 말한다. 해방 이후 지역별 종교분포를 살펴보면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친 기독교 인구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제주에서는 전국적인 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불교 신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것은 민간신앙의 뿌리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제주 민간신앙의 이러한 특이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보다 섬이라는 지리적인 환경이 지배하는 바가 크다. 조성윤은 “삶을 위협하는 자연의 힘을 시시때때로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로서는 그 불안심리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⁷⁰⁾이라고 말한다.

하순애는 제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신앙을 공통적으로 “재신앙

67) 위의 책, 96-97쪽.

68) 위의 책, 98-99쪽.

69) 조성윤, “제주의 무속신앙과 신종교” 『신종교연구』 Vol.9(한국신종교학회, 2003), 23-24쪽.

70) 조성윤, 이상철, 하순애,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98쪽.



적 성격”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신을 잘 모시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공포감”이 이들 신앙 안에 존재하고, 이 공포감은 금기의 적극적 수용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이를테면 돼지고기가 금기인 당에는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은 ‘몸을 버렸기 때문에’ 당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에 가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몸을 버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들에게 ‘믿음’은 ‘금기를 지키’와 표리의 관계를 이룬다. 근대화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큼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가정의 각종 의례에서 금기를 지키는 곳도 드물다는 것이다.⁷¹⁾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민간신앙에 대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제주 선교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b. 민간신앙과의 마찰

초기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이 바로 제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간신앙과의 마찰이었고, 오늘날에도 이 부분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초기 천주교 선교에 있어서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간신앙은 ‘걸림돌’ 내지 넘어야 할 ‘장벽’이었던 것이고, 이에 따른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901년 제주도에서 이재수의 난이 발생했을 당시, 천주교 신자들이 마을의 신당(神堂)을 부수고, 조상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방해했던 것은 대표적인 보기일 것이다. 신부들이 볼 때 무당과 일반 민중은 마귀에 붙잡혀 있는 것이었고, 양반 유림들이 행하는 제사 역시 귀신을 모시는 행위였다. 천주교 신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이상의 무당의 말을 따르지 않고 제사도 모시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⁷²⁾

‘이재수의 난’이라고도 불리는 신축교란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 사람들의 천주교에 대한 반감은 매우 커져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영향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신교의 복음 전파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제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신앙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초기 천주교의 무력적인 선교 정책으로 인해 제주 선교는 여전히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71) 위의 책, 236-37쪽.

72) 위의 책, 16쪽.



이러한 민간신앙의 규범은 제주 선교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어려움은 제주 내 교회의 상황 속에서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이다. 한 가지 예로 ‘신구간(新舊間)’이라는 이사 풍습을 들 수가 있다. 이 것은 민간신앙이 지키고 있는 금기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수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신구간에만 이사를 다니는 풍습은 제주 무속 신관(新官)에 기인한다.

신구간이란 대한(大寒)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까지의 1주일인데, 이 기간은 신·구 세관(新舊歲官)이 바뀌는 과도기간으로, 모든 신들이 천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지상에는 어떠한 신적 조화를 부릴 신이 없는 기간이다. 따라서 이어나 평소에 꺼려하던 집수리를 해도 ‘동티’날 염려가 전혀 없는 기간인 셈이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신구간의 이사풍습은 농업사회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 풍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종교성에 기인하는 사회심리가 일상에까지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⁷³⁾

제주 내 교회들의 목회자들은 이 신구간이 되면 각종 이사에배, 입주에배 등을 집례하느라 분주하다. 기독교 신앙 안에 규범으로 자리잡은 민간신앙이 혼재해 있는 것이다. 연말이나 연초에 발행되어야 할 교회 요람 및 주소록 등도 이 신구간 사이에 많은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구간 이후인 3월이나 4월에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주 내 교회들은 교인들에게 방문하는 것을 ‘심방(尋訪)’이라 하지 않고, ‘방문’이라고 한다. 심방⁷⁴⁾은 제주도에서는 무당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73) 위의 책, 237쪽.

74) 제주도에서는 무속적인 사제 곧 '무당'이라는 말 대신에 '심방'(신방, 神房)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심방'은 '신령을 만나는 이', '신령을 찾는 이'라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결국 '심방'이란 무속인(무당, 무녀)을 가리키는 동시에 무속인이 사람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곳을 통해 그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무속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 내에서 구태여 무속적인 언어인 '심방'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교우(가정) 방문' 등으로 순화하여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방(尋訪, pastoral visitation)", 『교회용어사전: 올바른 용어』, (2013. 9. 16. 생명의말씀사).

신앙민이 심방을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다. 당하니, 당하님, 나그네, 일안어른, 제관 등도 심방을 일컫는 명칭이다. 1702년 이형상이 쓴 『남환박물』, ‘풍속조’에 ‘당한(當漢)’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당하니 혹은 당하님은 조선통에서 사용되던 당한에 어미가 붙은 것으로 생각된다. 혹자는 당하니를 ‘당하인’으로 해석하는데, 이는 용어의 유래를 무시한 오류다 ‘일안어른’이란 ‘일을 잘 아는 어른’이라는 뜻으로 심방을 존칭하는 용어다. 일반적으로 ‘나그네’라는 용어를 쓴다. 그런데 안덕면 지역에서는 ‘나그네’라는 용어보다 ‘제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조성운, 이상철, 하순애,



교회 내에서 ‘심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목회자를 무당의 역할을 하는 심방으로 투영하여 해석하는 등의 민간신앙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되어버린다.

제주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민간신앙의 현상은 민간신앙이 역사문화적으로 제주인의 생활의식을 형성해 온 뿌리이기 때문이다. 근대화 현상으로 인해 당신앙이나 개별적으로 당을 찾는 형태는 약화되더라도 심방을 찾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⁷⁵⁾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수용한 제주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들 생활 속에 깊게 뿌리내려온 민간신앙은 하나의 생활의식이기 때문에 쉽게 벗어날 수가 없고 제주 선교에 있어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2. 조상제사

a. 제주도의 조상제사

전통문화 중에서도 조상제사는 기독교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조상숭배’는 기독교 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를 ‘우상숭배’로 규정하였다.⁷⁶⁾ 조상숭배 사상은 조상제사의 핵심을 이룬다. 유교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살아계신 것처럼’ 모시는 것을 효(孝)로 본다. 이재은은 조상제사에 대해서 “‘조상’은 제사를 통해 ‘이승과 저승’이란 공간을, ‘앞 세대’와 ‘뒷 세대’라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부모는 자신의 분신(分身)인 자손을 통해 죽음 이후에도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고, 제사를 통해 ‘조상’으로 좌정한다.”⁷⁷⁾고 설명한다. 삶 속에서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조상제사는 조상과 후손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으로 조상제사는 자연스럽게 혈연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혈연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혈연으로 맺어지는 유대감은 특히나 ‘폐쇄적’인 제주도 안에서 더욱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 ‘제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101쪽 각주 인용.

75) 위의 책, 258쪽.

76) 이재은, “제주도의 조상제사와 기독교”(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2011), 22쪽.

77) 위 논문, 23쪽.



사' 이상의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b. 조상제사와의 마찰

한국일은 조상제사와의 마찰에 대해서 “조상제사의 문제는 종교성을 논하는 신학적 차원만이 아니라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사회적 요인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 거부하는 심정적 요인, 제사문제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초신자의 입장, 신앙의 궁극적 대상을 선택하는 영적 대결의 차원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이며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다.”⁷⁸⁾ 고 말한다.

이재은은 “기독교의 영혼관은 전통적 조상관(祖上觀)과 전혀 다르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죽음 이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관이다.”⁷⁹⁾라고 분석한다.

조상제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적 신념이 독선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들에게 조상제사는 이미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은 사회적 규범이다. 이재은은 제주 선교를 지켜보는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일방적인 부정(否定)과 파괴는 용납되기 어려운 부분”⁸⁰⁾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지켜 온 규범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조상제사는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지켜 행했던 것이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방식과 문화들이 비합리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것이다.

3. 켄당문화

a. 제주도의 켄당문화

제주 선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고, 또한 극복해야 할 것이 바로 ‘켄당’문화 이다. 이재은은 “켄당이란 권당(捲堂)의 지역어로 친척을 의미한

78) 한국일, “조상제사에 대한 선교신학적 고찰: 복음과 문화의 관점에서,” 『장신논단』 제24권(2005), 401쪽.

79) 이재은, “제주도의 조상제사와 기독교,” 23쪽.

80) 위 논문, 22쪽.



다. 켄당은 친척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일원(一員)을 뜻하기도 한다.”⁸¹⁾고 켄당문화를 정의한다. 한국일은 켄당문화를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마을 내에서 혼인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친인척으로 연결되어 만들어진 독특한 문화”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어느 지역이나, 특히 농어촌이나 집성 촌 같은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묶어주는 공동체가 존재하지만 켄당문화는 그 중에서도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 문화”⁸²⁾라고 정의한다.

켄당은 협동의 구심점이다. 이재은은 “켄당에게는 서로를 도와야 하는 일정한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 농사일은 물론이고 혼례·상례 등의 집안 대소사나, 홍수·화재와 같은 갑작스러운 사건들은 이웃의 도움 없이는 이겨낼 수 없었다.”⁸³⁾고 언급한다. 제주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켄당의 도움은 크고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재은은 이어서 “사람들은 켄당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삶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켄당이 없거나 켄당의 규모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에 처했을 때 보호 장치가 약하다는 뜻이다. 반대로 세력이 큰 켄당의 일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삶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⁸⁴⁾고 분석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켄당은 더욱 강력해질 수 밖에 없는 공동체가 된다.

김영동은 “켄당문화는 형식 면에서 호칭체계, 결혼과 가족제도, 제사와 명절, 지역연대·가족연대·일연대, 장례식 등에서 드러나며, 그 내용과 기능은 끈끈한 연대와 상호부조의 문화현상”⁸⁵⁾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이어서 “고립된 섬이라는 제주도의 자연적, 지리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보고, 이 켄당의 연대는 혼인과 일, 장례와 제사를 통해 강화된다. 혈연·지연·생활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는 켄당의 이러한 문화적 특질들은 각각 독립 변수라기보다 씨줄과 날줄처럼 상호 얽혀있는 것으로 파악한다.”⁸⁶⁾고 말한다.

제주 선교에 연관된 사람들은 제주 선교를 막는 강력한 원인으로 ‘조상제사’와 ‘켄당’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켄당은 민간신앙과 조상제사를 유지시키

81) 위 논문, 32쪽 각주 인용.

82) 한국일, “제주 켄당문화와 제주 선교: 에큐메니칼 선교 관점에서,” 『장신논단』 제30권(2007), 386쪽.

83) 이재은, “제주도의 조상제사와 기독교,” 33쪽.

84) 위 논문, 33-34쪽.

85) 김영동, “제주도 ‘켄당문화’에 대한 창조적 긴장의 문화 신학적 선교,” 『장신논단』 제30권(2007), 364쪽.

86) 위 논문, 364쪽.



는 ‘허리’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조상제사와 민간신앙은 켤당의 구심점이 되고, 켤당은 이러한 숭배 행위를 지속시키는 핵심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은은 “기독교계에서는 이들의 민간신앙과 조상제사를 매개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켤당조직을 일종의 ‘종교문화’라고까지 이야기 한다.”고 말하며 “켤당은 ‘켤당문화’를 넘어서 ‘켤당신앙’에 가깝다.”⁸⁷⁾고도 주장한다. 그만큼 켤당의 연대의식은 일반적인 공동체성을 훨씬 초월하고, 이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 공동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b. 켤당문화와의 마찰

켤당은 구성원을 보호하고 단합시킨다. 또한 그들의 삶 전반을 통제하고 지배한다. 관계를 넘어서 권위를 갖는 것이다. 개인의 선택에 있어서 켤당의 권위에 반하는 행동이 있다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켤당 중에 한 명이 기독교 신앙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개종하는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제사와 민간신앙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켤당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켤당사회와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켤당은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⁸⁸⁾

제주의 어느 현직 목회자는 “제주도의 기독교 전과율이 낮은 이유는 제주도 사람들이 종교심은 강하지만 켤당문화 때문이라고 본다. 단순한 가족문화가 아니라 종교문화다. 종교화 되어 있다. 빠져나올 수 없도록 움아매고 있다.”⁸⁹⁾고 말을 할 정도이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는 개인의 선택에 해당되고 입교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기독교로 입교하는 것에 있어서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신앙으로 사회적 문제를 극복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들의 삶의 규범에 있어서 기독교 입교는 켤당공동체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기독교인으로서 당해야 하는 사회적 핍박과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설령 어렵게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신앙을 계속해

87) 이재은, “제주도의 조상제사와 기독교,” 32쪽.

88) 위 논문, 34쪽.

89) 위 논문, 35쪽, 2010년 3월 16일 현지 설문조사.



서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다.⁹⁰⁾

한국일은 “켄당문화는 제사를 매개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거부하기 힘든 대체종교적 결속력을 형성하고 있다.”⁹¹⁾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조상제사를 철저히 지키며 그 것을 거부한 사람은 지역 사회에서 존재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할 때 켄당은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제주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살아있는 힘으로 간주하고 있다.”⁹²⁾고 설명한다.

기독교 신앙이나 공동체에 대한 켄당의 입장은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공동체의 개념은 중요하게 여겨왔다. 특히 제주에서의 켄당문화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켄당문화를 지켜온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살아온 질서를 뒤흔드는 것을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위협이 되는 셈이다. 기독교인을 향한 적대심과 강한 배타성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⁹³⁾

켄당문화는 교회 내에서도 많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 복음을 접하는 과정 속에서도 켄당문화와 켄당공동체는 장애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접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의 교회에는 교회 규모에 관계없이 유독 가족 단위의 성도들이 많이 출석한다. 그리고 이 가족 단위의 성도들은 직계 가족 뿐만 아니라 먼 친척, 그리고 켄당공동체까지도 포함된다. 이들이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켄당의 규모나 영향력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그 세를 보일 때가 있다. 성도들 간의 한 두 명의 마찰은 곧 켄당 간의 갈등이다. 교회 내 봉사과 직분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켄당공동체는 결정적인 순간에 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의 소신에 따라 목회자의 방침을 따르기보다 집단 속에 자신을 투영시키는 행동 양상이 있다. 그래서 오랜 시간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켄당문화는 교회 조직과 체계를 위협하기도 한다.

4. 폐쇄성과 배타주의

90) 위 논문, 39-40쪽.

91) 한국일, “제주 켄당문화와 제주 선교: 에큐메니칼 선교 관점에서,” 386쪽.

92) 위 논문, 386-387쪽.

93) 이재은, “제주도의 조상제사와 기독교,” 38쪽.



제주도가 지닌 고립성, 외부 권력이나 외부 세력에 의한 착취와 고난의 역사는 제주를 더욱 폐쇄적인 사회와 성격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구성원 간의 내부 결속이 무엇보다 강조되었기 때문에, 켈당문화는 제주도에서 공동체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깊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내부 결속은 신앙에 있어서는 밀어내고자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⁹⁴⁾

제주도는 기후와 토양 등 자연적인 조건으로만 보아도 척박한 땅이다. 바람과 태풍이 잦아서 농작물을 수확하기에도 어려운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고 작게 외부인들에 의한 상처를 많이 받은 곳이다. 몽고의 침입과 약탈, 천주교 선교사들의 횡포와 권력의 남용, 일제강점기 시절의 강압적인 통치, 지워지지 않는 4·3사건의 아픔 등이 이들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⁹⁵⁾ 외부인들은 제주도에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전해준 면도 있지만, 반면에 새로운 문명을 소개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고난을 안겨다 주었다.

켈당문화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친인척 관계를 매개로 삼아 강력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생존규범 양식’이라고 한다면,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받은 상처는 그 내부 결속을 더 강화 시키는 폐쇄적 성향이 짙고, 외적으로는 철저히 밀어내는 배타주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에서 온 사람을 ‘육지 것’으로 부른다. 단어 자체에 육지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뜻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육지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 사람들과 섬 사람들을 철저히 구분한다.

따라서 제주 선교에 있어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육지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이재은은 “전도나 목회는 그 특성상 지역민들과 일정한 유대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면에서 제주 선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⁹⁶⁾

B. 외부 요인으로 인한 제주 선교의 어려움

94) 위 논문, 42-43쪽.

95) 위 논문, 43-44쪽.

96) 위 논문, 45쪽.



1. 천주교의 약진

a. 천주교의 사회 참여

1901년 ‘신축교란’으로 인해 위기가 있었지만 천주교는 꾸준한 노력을 지속하여 1990년대 이후 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초기 개신교 제주 선교에 있어서 아쉬웠던 부분이 교육, 의료 등의 사회 기반을 통한 선교 정책이 미약한 점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천주교는 사회 기반을 통한 선교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대표적인 예로 천주교는 ‘신성여자중고등학교’를 1909년에 설립하였다. 이 때는 신축교란의 여파로 사회적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했던 실정이었다. 처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자녀들이 이 중등교육기관에 입학할 하였지만, 머지않아 일반인들의 자녀도 입학하게 되었고, 이러한 교육을 활용한 선교는 제주 사회 뿐만 아니라 천주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김견수는 또 하나의 예로 “아일랜드 출신의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Patrick James Mcglinchey; 한국명 임피재)⁹⁷⁾ 신부의 선교 사역”을 꼽는다. 맥그린치는 제주 중산간 황무지를 개간하여 ‘이시돌 목장’을 만들었다. 김견수는 “당시 제주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가난과 싸우는 것”이라고 언급하는데, 천주교는 이러한 제주도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도 사람들의 천주교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된다. 맥그린치가 부임 당시 25명이었던 한림지역의 천주교 신자들은 현재 5,000여명으로 늘어났다.⁹⁸⁾

천주교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그 분위기를 포섭하는 것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여주고 있다. 70년대와 80년대 계속

97) 맥그린치 신부는 26세 때인 1954년 제주도에 파송된 아일랜드 성골롬반선교회 소속 선교신부이다. 그는 50년 넘게 제주 선교 사역에 헌신한 인물이며, 지금도 제주에서 사역하고 있다. 맥그린치 신부는 천주교에 대한 제주도 사람들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사람 중 하나이다. 그는 제주도 사람들과 함께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실질적으로 모색하고 행동했다.

98) 김견수, “21세기 제주도 선교 전략 및 전망에 관한 연구,” 60-61쪽.



되어온 천주교의 현실 참여와 그에 따른 천주교의 공신력과 호감도가 상승한 것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b. 조상제사의 허용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주교의 교세가 개신교의 교세보다 앞서는 지역이 제주이다. 한국일은 “천주교는 조상제사를 수용함으로써 비교적 선교 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며 실제적으로 개종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개신교는 조상제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⁹⁹⁾고 말한다.

최근 제주에서의 천주교의 약진은 사회 참여적인 바탕 위에 조상제사 수용으로 인한 관련성이 많아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도 소극적인 천주교 안에서 조상제사 수용이 본격화 되는 1990년대와 제주 천주교의 약진이 맞물려 있는 것이 그 근거이다.¹⁰⁰⁾ 특히나 근대화 시대로 정착이 되면서 제주도 사람들은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종교를 요구하게 되었다. 조상제사와 민간신앙이 깊게 뿌리 내린 제주에서 개신교 선교는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천주교가 조상제사를 허용하고 나서 제주의 불신자들은 개종에 따른 갈등이 적은 천주교를 택하고 있다.

c. 천주교와 개신교의 선교 정책의 차이

천주교 제주 선교는 개신교 제주 선교와 그 출발부터 달랐다. 천주교의 경우, 제주는 ‘천주교외국선교회’의 선교지로서 물적, 인적 지원을 통해 선교사들이 직접 상주하고, 물질적 후원을 받으며 선교 활동을 펼쳐 나아갔지만, 개신교의 경우는 한국 교회가 제주 선교를 담당해 물적, 인적 자원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했다.

천주교 제주 선교는 복음 전파와 함께 병원 설립, 학교 운영을 동시에 진

99) 한국일, “제주 권당문화와 제주 선교: 에큐메니칼 선교 관점에서,” 387쪽.

100) 김건수, “21세기 제주도 선교 전략 및 전망에 관한 연구,” 61쪽.



행하였다. 직접 선교와 간접 선교의 균형을 이룬 선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개신교의 경우는 대부분 직접 선교에 의존했다.¹⁰¹⁾ 학교와 병원, 복지 등의 간접 선교가 천주교에 비해서 턱없이 열악했던 것이고, 천주교는 이를 일관되게 추진했던 것이다. 제주에서 천주교가 진행했던 이러한 간접 선교의 특징은 사실 개신교의 특징이었고, 육지에서 원활하게 시행이 되었지만, 제주도에서는 직접 선교의 영역이 두드러졌고 상대적으로 간접 선교의 영역이 부족했던 것이다.

또한 천주교는 제주에 적합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이시돌 목장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농촌을 개발해서 가난한 제주도 농민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 등을 하였다. 병원 설립, 목장 설립 등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¹⁰²⁾

천주교의 중요한 정책 중 다른 하나는 바로 꾸준히 인재를 양성했다는 점이다. 특히 여성이 많은 제주 지역에서 여성의 위치를 일찍 파악하고 여성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그리고 4:3 사건과 같은 희생의 아픔과 응어리를 치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제주도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간 것이다. 개신교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천주교는 전략적으로 이들의 역사적 고통을 치유하는 일에 앞장선 것이다.¹⁰³⁾

조상제사의 허용과 위에서 언급한 사회 참여적 선교 정책으로 인해 천주교는 성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표2> 제주 천주교 교세 증가¹⁰⁴⁾

연도	성당 수			교직자 수		신도 수
	본당	공소	계	주교	신부	
1957	3		3			
1965	5		5		5	
1987	12	19	31	1	18(6)	23,870
1991	14	17	31	1	23	29,698
1996	16	16	32	1	30	41,938

101) 박용규, 『제주 기독교회사』, 648쪽.

102) 위의 책, 648-649쪽.

103) 위의 책, 『제주 기독교회사』, 649쪽.

104) 자료: 천주교 통계 발표.



1997	20	14	34	1	35	44,196
1998	21	13	34	1	36	47,297
1999	22	12	34	1	38	50,761
2000	22	12	34	1	36	52,468
2001	23	12	35	1	35	54,550
2002	23	11	34	2	36	57,198
2003	23	11	34	2	37	58,512
2004	24	11	35	2	37	60,286
2005	24	11	35	2	37	62,113
2006	24	9	33	2	37	63,575
2007	24	9	33	2	36	64,917

제주의 천주교는 1987년부터 2007년까지 20년 동안 3배에 가까운 성장을 하였다. 초기 신축교란과 같은 사건으로 실패를 경험한 것에 비하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2007년 당시 제주 인구의 통계가 563,388명¹⁰⁵⁾인 것을 감안할 때 제주의 천주교 교세는 전체 인구 대비 11%를 훨씬 넘어섰다. 오늘날 천주교는 제주도에서 영향력 있는 종교단체로 성장했다.¹⁰⁶⁾

박용규는 천주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 근거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불고 있는 천주교의 봄에 힘입어 제주도 역시 자연적인 교세 증가가 될 것이라는 점과 제주라는 섬이 갖는 특성을 고려할 때 천주교가 갖고 있는 교파라는 특수한 성격의 천주교 영향력이 제주에서 더욱 확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¹⁰⁷⁾ 이렇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제주에서의 개신교의 복음 전파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2. 개신교의 정체기(停滯期)

천주교의 약진은 개신교 제주 선교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공격으로 다가 오게 되었다. 종교가 없는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같은 기독교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는 신앙관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문화나 조상제사, 민간신앙을 지킬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개신교 신앙은 지키기 까다로

105) 2015년 기준으로는 64만여 명이다.

106) 박용규, 『제주 기독교회사』, 647쪽.

107) 위의 책, 651쪽.



운 종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개신교를 선택하는 대신 차선택으로 천주교를 종교로 선택하는 제주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맞물려서 개신교 교세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거나 현상 유지 정도가 되는 상황이다.

<표3> 대한민국 종교별 인구 비율¹⁰⁸⁾

지역/종파	개신교	천주교	불교	소수종교	무종교
서울	23 %	14 %	17 %	1 %	45 %
경기	22 %	13 %	16 %	1 %	48 %
강원	16 %	9 %	23 %	1 %	51 %
충청	18 %	10 %	22 %	1 %	49 %
전라	23 %	11 %	14 %	2 %	50 %
경상	10 %	7 %	37 %	1 %	44 %
제주	7 %	10 %	33 %	1 %	48 %

위의 종교별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개신교 입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며 가장 낮은 곳은 제주이다. 반면에 천주교의 경우 입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똑같이 서울이지만, 가장 낮은 곳은 제주가 아니라 경상 지역임을 알 수가 있다. 더욱이 제주의 천주교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5번째임을 살펴볼 때 천주교에서 만큼은 제주는 ‘복음의 불모지’가 아닌 것이다. 2005년 통계청 기준¹⁰⁹⁾으로 개신교 복음화율은 7%이고 천주교는 10%이다. 천주교는 입교인들의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있고, 개신교의 입교인들은 이중 교적 내지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주 내 교회의 목회자들은 그 비율을 더욱 낮게 보고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제주에서 가장 높은 종교별 인구가 불교이고, 제주에서의 불교 인구 비율은 전국 1위라는 점이다. 이는 불교가 민간신앙과 조상제사를 포용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잘 맞고, 전통과 웬당문화를 중요시하는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받아들이기 쉬운 종교라는 것을 보여준다.

108) 통계청, 2005년.

109) 통계청 조사 5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종교별 인구비율은 2010년과 2015년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통계청의 종교별 인구비율의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05년 기준이 된다.



<표4> 제주도의 종교별 인구 현황¹¹⁰⁾

구분	종교인구 (전체인구)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기타
제주	272,590 (51.3%)	38,183 (7.2%)	54,764 (10.3%)	73,658 (32.7%)	1,212 (0.2%)	1,687 (0.3%)	3,086 (0.6%)
전국	24,970,766 (53%)	8,616,438 (18.3%)	5,146,147 (10.9%)	10,726,463 (22.8%)	10,726,463 (0.3%)	129,907 (0.2%)	247,236 (0.5%)

위의 도표를 살펴보면 제주의 천주교인 비율은 전국 평균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불교의 경우는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것을 볼 때에 불교 내 민간신앙이나 조상제사와 연관성으로 인해 높은 입교율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개신교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형편을 보이고 있다. 또한 꾸준하게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의 경우, 정체와 마이너스 성장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표5> 2004-2007 예장통합 제주 교회의 성장과 감소¹¹¹⁾

년도	2004	2005	2006	2007
교세	28,809	30,373	31,086	30,619

통합측 교세를 살펴보면 점진적 성장을 보이는 듯 하나 2007년에는 다시 감소 폭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6> 제주 감리교회 성장과 감소

년도	1992	2004	2006	2007
교세	3,658	3,842	3,897	3,775

위의 제주 내 감리교회의 교세 또한 1990년대에 성장을 이루는 듯 하지만, 2007년부터 확실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체 현상은 인구 증가 대비로 해석을 해 보았을 때에 정체가 되

110) 통계청, 2005년 인구센서스, 단위 명

111) 예장 통합 제주노회 통계



는 것을 넘어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현상은 천주교 교세 증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더욱 더 뚜렷하게 대비된다.

통계청은 2005년 한국의 종교 인구를 발표하면서 1995년과 2005년 사이 한국 개신교 인구가 144,000명이 감소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천주교가 같은 기간 295.1만 명에서 514.6만 명으로 급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개신교는 하향 길에 접어든 것이다.¹¹²⁾

3. ‘제주 4·3 사건’으로 인한 제주의 상처

제주에는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수성과 그에 따른 단점, 독특한 전통문화 양식, 생활에 배인 삶의 규범으로 인해 스스로 폐쇄하고 배타적인 면이 있지만, 제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큰 작용을 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은 온 나라가 겪은 상처와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그 시기에 똑같은 고통과 비극을 겪은 것 이외에 제주에는 ‘제주 4·3 사건’이라는 씻을 수 없는 더 큰 상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외세의 침략과 함께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고 서로 칼과 총을 겨누었던 이 비극적인 사건을 돌아보고 제주 선교에 있어서 유념해야 한다.

a. 제주 4·3 사건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 중에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강력한 토끼몰이식 수색작전과 ‘삼광(三光)’, ‘삼진(三盡)’작전이라는 대량 학살 작전이 전개되면서, 제주도는 점차 피로 ‘불게 물든 섬’이 되어갔다. 당시 인명 피해 상황이 엄청났던 관계로 정확한 수치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소 3만 명이상이 사망했다고 추론될 뿐이다.¹¹³⁾ 한편 현길언은 그의 책 『섬의 반란,

112) 박용규, 『제주 기독교회사』, 655쪽.

113) 정부 측이 제시한 자료만 해도 한국편람(1956년)에는 4만 명이, 1960년 국회의원 김성숙이 제출한 제주도 양민 학살 건의안에는 5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고, 1963년 제주



1948년 4월3일-제주 4.3사건의 진실』에서 “1948년 4월 4일 새벽, 무장한 인민 유격대가 제주도 내 경찰관서 12곳을 공격하여 경찰관을 살해하였고, 선거관계자 및 우익 인사를 테러함으로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¹¹⁴⁾고 말한다. 4·3 사건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남로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무장봉기’ 또는 ‘애국투쟁’, ‘4.3항쟁’이며, 우익의 입장에서는 ‘4.3폭동으로 해석하고 있다.¹¹⁵⁾

4·3 사건의 배경은 일제강점기의 해방과 함께 미군정이 제주에 상륙하면서 이념의 대립으로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좌익과 우익이 냉전 체제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38선 이북은 소련이 점령하여 공산주의 체제가 굳혀져 가고 있었고 38선 이남은 좌우익의 충돌로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특히 제주도는 공산 세력들의 은거지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미군정 당국과 한국 정부가 이 부분에서 유연성을 보이지 못한채, 폭력진압을 행사한 것이다.¹¹⁶⁾

해방 이후 전국적으로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고, 산하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제주도 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9월 10일에 결성되었다.¹¹⁷⁾ 고민희는 “중앙의 건국준비위원회가 9월 6일 조선 인민공화국 창건을 선언한 이후부터 건국준비위원회의 지방조직은 ‘인민위원회’로 불리게 되었다. 초기의 제주 읍·면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은 지역 원로들이 추대됨으로서 대체로 이념과는 무관했다.”¹¹⁸⁾고 설명한다. 즉 행정적인 기능보다는 치안활동에 주력을 했던 것이다. 농사법에 대한 교육이나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야학을 통해 문맹퇴치 운동과 학교 설립 등을 했다.

사건의 발단은 1947년 3월 1일 기념식장이었다. 제주 행정당국은 2월

도 당국이 발행한 제주도 제 8호에는 80,06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8), 8쪽.

114) 현길언, 『섬의 반란, 1948년 4월 3일 - 제주 4.3 사건의 진실』(경기: 백년동안, 2014), 36쪽.

115)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248쪽, 각주 인용.

116) 위의 책, 248쪽.

117) 해방 직후부터 여운형(呂運亨)을 중심으로 치안을 확보하고 현존 시설 등을 보존, 관리하는 임무와, 근본적으로는 독립국가를 탄생시키기 위한 과도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가 결성되는데, 곧 이 조직의 지부 성격을 띤 단체가 145개소에 결성되었다.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75쪽. 고민희, “제주도 초기 교회 형성과정 연구: 이도종의 생애와 목회활동을 중심으로,” 77쪽 각주 재인용.

118) 고민희, “제주도 초기 교회 형성과정 연구: 이도종의 생애와 목회활동을 중심으로,” 77-78쪽.



22일에 3·1절 기념행사 모임이 순수한 3·1절 행사 모임이 아닌 좌익계의 주도로 반미와 찬탁을 주장하는 모임이기에 3·1절 기념행사준비위원회 해체 명령과 시위 엄금에 대한 경고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시위대는 시위를 감행하게 된다. 1947년 3월 1일 3·1절 행사가 제주북국민학교에서 제주시민 30,000여명이 모여 진행이 되었으며, 기념행사를 마치고, 시위대는 반미선동구호를 외치면서 관덕정 앞으로 행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마대장 임영관 경위가 시위를 막기 위해 군중들 사이를 헤치다가 서성대던 어린이를 치고 말았다. 어린이가 크게 울자 시위 군중들은 “경찰이 어린이를 치어 죽였다.”고 하면서 경찰에 돌을 던지고 급기야 기마 경찰을 끌어내리는 등 큰 소란으로 변해 갔다.¹¹⁹⁾ 경계를 서고 있던 경찰대는 시위대가 경찰을 습격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발포하기에 이른다.¹²⁰⁾ 이 사건으로 인해 민간인 6명이 죽게 되고, 부상자가 10명이 생겨났다.¹²¹⁾

결국 이 3·1절에 일어난 총기 발포로 인해 제주 사회는 크게 요동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 당국은 민심을 수습하기 보다 ‘경찰서 습격 사건’으로 규정하며 발포의 정당성만을 강조하게 된다. 공교롭게 이러한 민심의 동요를 남로당이 읽게 되고 주도적으로 ‘전도 총파업’이 발생하게 되는데, 고민희는 이것을 “1947년 발생한 3·10 총파업은 한국에서 유례가 없던 민·관 총파업이었다.”¹²²⁾고 말하고 있다. 이 총파업의 움직임은 남로당 제주위원회가 배후에서 주도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 수많은 학교와 관공서, 심지어 경찰서까지도 문을 닫았기 때문에 미군정과 한국 정부는 ‘제주도 사람들은 모두 좌익에 가담한 것’으로 유연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1948년에 남한에서는 북한과 달리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5월 10일 선거를 준비하게 되는데, 좌익파에서는 남북한의 단일 정부 수립을 원하던 상황이었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제주에서도 5·10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무장봉기가 계획되었다. 이윽고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이승진(김달삼) 등 남로당원 350여 명이 무장을 한 채, 경찰관서, 경찰지서, 우익단체 등을 급습하였다.¹²³⁾ 그 피

119)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248쪽.

120) 고민희, “제주도 초기 교회 형성과정 연구: 이도종의 생애와 목회활동을 중심으로,” 78쪽.

121)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249쪽.

122) 고민희, “제주도 초기 교회 형성과정 연구: 이도종의 생애와 목회활동을 중심으로,” 78-79쪽.



해로 가옥 소실 400여호, 양민 사망 292명, 양민 부상 98명, 납치 525명에 이르렀다.¹²⁴⁾

4·3 사건은 마지막 빨치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오인권이 생포되는 1957년 4월 2일까지 전개 되었다. 만 9년 동안 계속된 이 사건은 제주도의 유사 이래 최대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¹²⁵⁾ 남로당 좌익계는 우익단체와 정부단체를 장악하기 위해 봉기를 일으켰고, 경찰과 우익단체는 남로당을 색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었다. 이념에 의해 이들은 양쪽 모두의 수색 대상자가 되었고, 무고한 희생자가 수없이 나오게 되었다. 삶의 터전을 떠나서 중산간으로 올라가 ‘퀘야’라고 불리우는 굴속에서 숨어 지내기도 하였다.

4·3사건은 변동기에 일어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희생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길언은 “남로당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과 그 실현은 사실 제주도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다.”¹²⁶⁾고 말한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제주도 사람들인 것이다.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믿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숨어 지내야만 했던 아픈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의견을 피력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행위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대중 속에 묻혀 지내는 것이 이들의 생존 방식이었고, 지금까지도 이들의 삶 속에 잔재해 있다. 생존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시기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4·3사건이 일어날 당시 교회는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지 못한 것이다. 김건수는 4·3사건의 피해 정도가 “27만 명의 인구 중 3만 여명이 사망했으며, 그것도 90퍼센트가 경찰과 군인 및 토벌대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고 비참하게 죽어갔다. 이때 교회가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구현해야 함에도 교회는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¹²⁷⁾며 이것을 부끄

123)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249-250쪽.

124)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제주사연표 II』, 51쪽.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249-250쪽에서 재인용.

125) 고민희, “제주도 초기 교회 형성과정 연구: 이도종의 생애와 목회활동을 중심으로,” 81쪽.

126) 현길언, 『섬의 반란, 1948년 4월 3일 - 제주 4.3 사건의 진실』, 79쪽.



러운 선교 역사로 평가한다.

b. 제주 4·3 사건으로 인한 교회의 피해

4·3 사건을 일으킨 좌익계의 입장에서는 제주 교회가 정치권에 가까워 자신들에게 불리한 존재로 보였다. 그리하여 일부 교회와 교인들이 피해를 당하였다.

강문호는 1984년 당시 노회장으로 제주도 교회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1949년 새문안교회에서 회집한 제35회 총회에서 4·3사건 피해 상황을 보고하였는데, 4·3 사건으로 희생된 기독교 순교자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¹²⁸⁾

<표7> 제주 4·3 사건 순교자

직분	성명	소속 교회	피해 상황
목사	이도중	화순	공비에게 납치되어 피살됨.
장로	허성재	모슬포	야간에 자택에서 공비에게 피살됨.
집사	부양은	김녕	야간에 자택에서 공비에게 피살됨.
집사	진시규	중문	노중 공비에게 납치 피살됨.
교인	오대호	중문	자택에서 공비에게 납치 피살됨.
교인	진학인	중문	노중 공비에게 납치 피살됨.
교인	임명선	서귀포	교회당 소각 시 공비에게 피살됨.
교인	오병필	서부	사택에서 공비에게 피살됨.
교인	오병필 동생	서부	사택에서 공비에게 피살됨.
교인	최순임	모슬포	승차 운행 도중 공비의 습격으로 피살됨.
교인	허영국	모슬포	국군의 오발로 인해 사망함.
교인	고창선	모슬포	국군의 오발로 인해 사망함.
교인	권찰	삼양	자택에서 공비에게 피살됨.
교인	학생	삼양	자택에서 공비에게 피살됨.
교인	김승은	두모	승차 운행 도중 공비의 습격으로 피살됨.
교인	지성익	대정영락	은신 중 폭도 혐의를 받고 국군에게 피살됨.
교인	지성익 동생	대정영락	은신 중 폭도 혐의를 받고 국군에게 피살됨.

127) 김건수, “21세기 제주도 선교 전략 및 전망에 관한 연구,” 52쪽.

128) 『제주 선교 70년사』, 64쪽.



순교자 중 이도종의 경우는 제주 출신 1호 목사이면서 4·3사건으로 희생되었다. 순교자 중 목회자의 기록이 없는 이유는 1948년, 사건이 일어난 그 때에는 제주도 있는 목회자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고민희는 “이기풍 목사도 이미 제주를 떠난 상황이었으며, 남아있는 사역자들도 일제시대에 육지로 소개되어 사역지를 떠날 수밖에 없던 형편이었다.”¹²⁹⁾고 덧붙여 설명한다. 교회 수에 비해서 목회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였고, 이 상황 가운데 4·3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다. 온 제주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시련과 상처의 시기를 겪었고 교회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오늘날까지도 4·3사건의 잔재가 남아있다. 제주 교회 내에서는 생존해 있는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거나 자신이 나타나는 것은 곧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교회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 사건은 분명 제주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선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선교사의 잦은 교체와 육지 출신 목회자 배척

제주 선교를 힘들게 요인 중 다른 하나는 사역자의 잦은 교체도 한 몫하고 있다. 초기에도 제주 선교를 담당하기 위해 부임한 전도목사들이 일정기간을 채운 후에는 육지로 떠나는 일이 일반적이었기에 제주에서 선교 사역은 ‘거처가는’ 사역의 일부로 인식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초기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선교지로서 제주는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주 선교를 지속하는 일은 힘겨운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처럼 경우 한 지역을 전담한 선교사가 일생 동안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과 동고동락하며 선교지에서 일생을 보냈던 것과는 분명히 대조를 이룬다.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미처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 역사의 아픔과 지리적 약점으로 인해 폐쇄적인 상황 속에서 독특

129) 고민희, “제주도 초기 교회 형성과정 연구: 이도종의 생애와 목회활동을 중심으로,” 98쪽



한 문화를 창출해 내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상황이었기에 육지의 선교사들이 그곳에서와 똑 같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차이와 어려움이 있던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하지만, 현지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목회자의 교체와 이동은 이들의 마음을 더욱 닫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육지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상황에서 목회자들의 잦은 이동은 현지 사람들의 반감을 부추기는 것이다. 일명 ‘뜨내기 목사’로 비쳐질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 복음 전파가 확산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사역자의 이동이 많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사역자들의 쉽게 생각하는 선교 사역에 대한 정책이 기독교의 온전한 정착을 막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¹³⁰⁾

초기 제주 선교의 역사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육지 출신의 목회자가 제주 선교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고, 여전히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대한민국 행정 구역 안에 살고 있지만, 그 문화와 환경과 분위기를 적응하는데에 있어서는 오히려 외국보다 더 힘들다는 말을 한다.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과 육지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하는데,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제주 사회의 폐쇄성은 이곳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고 섬을 떠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외부인에 대한 이들의 배척은 ‘어차피 외부인은 자신들과는 절대로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섬이라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공동체에서 이들의 삶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이재은은 “육지 출신 목회자에 의해 주도된 제주 선교는 이러한 맥락 안에 있다.”¹³¹⁾고 말한다. 결국 제주 선교와 제주 사회의 괴리는 여전히 교회나 복음을 ‘육지에서 온 손님’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130) 이재은, “제주도의 조상제사와 기독교,” 51-52쪽.

131) 이재은, “제주도의 조상제사와 기독교,” 52-23쪽.



IV. 제주 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

A. 제주 문화의 이해와 협력

육지에서는 개신교의 선교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끼쳤다. 하지만 제주 복음화율은 육지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일방적인 선교 방식은 제주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감만 주었다. 제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 결과로 현지인들과 갈등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제주도의 특유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허물고 이른바 ‘기독교적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심어주고자 한 노력들은 제주 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친 것이다.¹³²⁾

제주도는 혈연공동체가 중요시되는 가족 중심의 사회로서 민간신앙과 조상제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문화가 배어있다. 이러한 문화에 알맞은 제주 선교의 접근이 필요하다. 육지인들 뿐만 아니라, 제주도 사람들도 유교와 불교가 본래 우리나라의 종교가 아니었음에도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것들은 한국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적인 것은 한국적인 것이 아닌 서양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제주 선교에 있어서 기억하고 저항감을 주지 않고 토착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한다. 제주의 문화를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 문화와 어울리는 선교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¹³³⁾

이에 따라 제주 선교를 위해 제주 문화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요구된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외부 사람들은 제주 전통 문화와 혈연공동체의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걸림돌이라는 생각부터 지워야 한다. 이들의 문화와 살아온 삶의 양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일은 “제주 선교를 위한 선교신학적 토대와 그에 따른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선교현장의 다양한 특징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국 교회에 필요한 역할을 제시한다.¹³⁴⁾

교회가 제주 사회에 녹아들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 차원이 아니다.

132) 이재은, “제주도의 조상제사와 기독교,” 93쪽.

133) 정은렬, “통전적 선교신학에서 바라본 제주 선교”(석사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8), 54-55쪽.

134) 한국일, “제주 권당문화와 제주 선교: 에큐메니칼 선교 관점에서,” 392쪽.



서로에 대한 몰이해와 단절에 있는 것이다. 제주 사회에 있어서 교회의 태도와 접근 방법, 그리고 이들 문화에 대한 편견이 깨어져야 한다.¹³⁵⁾

1. 민간신앙과 조상제사에 대한 이해와 추도예배로의 발전과 협력

제주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간신앙과 조상제사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실제로 제주 기독교계에서는 “조상제사와 기독교의 갈등이 역으로 천주교의 성장을 부추기고 있다.”¹³⁶⁾고 평가한다.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신앙의 뿌리는 같지만 제사를 금하는 개신교 대신, 그 것을 허용하는 제주인들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으로 보고 있다.

한국일은 “기독교는 혼합주의를 부정적 관점에서만 평가해 왔다. 그러나 복음이 새로운 문화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현지 종교-문화적 요소를 수용하며 적응하게 된다면 그러한 복음과 문화의 습합과정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이 요청된다.”¹³⁷⁾ 말한다.

이제 개신교의 입장에서 제주 선교를 위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천주교의 민간신앙과 조상제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a. 전통문화로 이해하는 민간신앙과 조상제사

처음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가장 큰 마찰이 바로 ‘서양 종교가 그동안 행해왔던 우리나라의 전통을 말살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점은 제주도라고 예외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폐쇄된 사회와 고유의 문화가 있던 지역이기에 여기에 대한 반감은 더욱더 커졌던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 신앙이 없는 제주도 사람들은 ‘기독교는 선조도 모르고 전통을 무시하는 양놈 종교’라는 인식이 가득하다.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면 이들이 살아온 규범 속에서 ‘역적’이 되는 것이다. 제주 내 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비록 민감한 사

135) 이재은, “제주도의 조상제사와 기독교,” 93쪽.

136) 위 논문, 76쪽.

137) 한국일, “조상제사에 대한 선교신학적 고찰: 복음과 문화의 관점에서,” 407쪽.



항이지만 민간신앙과 조상제사에 있어서 전통문화의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과 교리적인 접근으로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조상숭배에 대한 인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의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인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조상숭배는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이고 부모 공경은 산 사람에 대한 예우이다. 교회가 접근할 부분은 ‘죽기 전에 하느님 죽고 나서 하느님’이 아닌 ‘부모를 공경 하느님 안하느님’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

이재은은 “조상제사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당면한 과제는 죽은 자의 ‘처우’ 문제였다. 죽음에 있어서 조상제사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이별을 완충하고 그들을 이승과 저승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는 데 반해 기독교식의 죽음은 단순하다.”¹³⁸⁾ 고 말한다. 조상제사를 봉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염려하지만 이들 입장에서 바라 볼 때에 기독교인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의 양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조상제사 봉행자에게 죽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죽은 자는 ‘이미 사라진 존재’로 인식된다. 이 것은 기독교인이 조상제사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독교적 사고방식으로 죽음에 대한 이들의 관념을 쉽게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전통적 가치관을 대체할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¹³⁹⁾ 민간신앙과 조상제사에 대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듯이, 역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들의 편견도 있음을 지적하며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선조에 대한 전통과 문화를 무시한 채 삶을 살아가는 후손은 없다. 이 부분을 제주도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10계명 중 1-4계명은 ‘신’을 향한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이고, 나머지 5-10계명은 사람이 사람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이 5-10계명, 즉 사람과 사람사이의 범 중에서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이다.

성경은 ‘부모 공경’이 왜 중요한지 여러 근거를 가지고 있다.¹⁴⁰⁾ 민간신

138) 이재은, “제주도의 조상제사와 기독교,” 113쪽.

139) 위 논문, 113-114쪽.

140) 부모 공경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개역개정).



양과 조상제사에 있어서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복’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은 똑같이 부모 공경에 대한 ‘복’을 언급하고 있다.¹⁴¹⁾

구약학자인 클라우스 베스터만(C. Westermann)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베스터만은 성경에 기록된 전 피조세계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활동을 성장(Wachstum)의 차원”에서 이해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은혜를 베푸신다. 축복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수확을 거두거나, 자녀를 낳거나 가축이 증가하고, 가정과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삶을 누리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피조세계와 인간의 삶을 축복하는 행위로 이해한다(사도행전 14장 17절). 자연과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주기적인 변화는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활동”이라는 것이 베스터만의 주장이다.¹⁴²⁾

한국일은 “축복의 활동은 이러한 신학적 틀 안에서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보다 적극적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¹⁴³⁾고 말한다.

이 점을 근거로 제주도 사람들에게 설득하여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조상제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떠한 종교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 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잠언 28:24)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잠언 23:25)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에베소서 6:1)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마태복음 19:19)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골로새서 3:20)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9:3)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신명기 27:16)

141) 에베소서 6:1-3(개역개정).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42) 한국일, “제주 권당문화와 제주 선교: 에큐메니칼 선교 관점에서,” 401쪽.

143) 위 논문, 401쪽.



를 더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살아생전에 부모 공경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조상에 대한 예우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신앙인의 각성과 자세가 필요하다. 가족 간의 불화나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신앙이 없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로 도움과 덕이 되지 못한다. 살아생전에 부모 공경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한국 교회는 바로 이 ‘효’ 사상을 신앙과 접목 시켜서 이 점이 선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조상제사를 강조하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민간신앙까지 접목되어 있는 제주 사회에서는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b. 추도예배로의 발전

조상제사를 이해하고 조상제사를 봉행하는 사람들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추도예배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육지에서도 많이 행해지는 것이지만, 제주에서는 조상제사가 매우 각별한 이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추도예배를 진행하되 조상제사 못지 않는 예우와 관심이 필요하다.

조상제사 봉행자들에게 있어서 조상제사는 죽은 자와 산자의 일정기간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매개체이다. 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이고 평화롭게 이별을 맞이한다고 느낀다. 이들에게 제사를 봉행하는 것은 이들이 머무는 현세의 삶과 저승의 세상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삶 속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¹⁴⁴⁾

추도예배는 이러한 전통적 관념을 어느 정도 수용하며 끌어안기 위한 고민 속에서 제시된 방안이다. 이 추도예배를 통해서 기독교는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허무함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고, 제사를 부정함으로써 부딪치는 사회적 저항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면서 ‘종교와 관습’ 사이에서 일정부분의 타협을 찾을 수 있게 된다.¹⁴⁵⁾ 기독교 신앙에서도 조상제사 못지 않은 죽은 자에 대한

144) 이재은, “제주도의 조상제사와 기독교,” 116쪽.

145) 이재은, “제주도의 조상제사와 기독교,” 117쪽.



예우가 있음을 확신시키며 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민간신앙과 조상제사를 수용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교리를 지키며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켤당문화의 이해와 협력

제주에서 켤당문화는 노동과 소속감과 성취감, 마음의 평안 등 생존과 삶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답을 주는 ‘완결체’라고 볼 수 있다.¹⁴⁶⁾ 특히 켤당문화는 결국 민간신앙과 조상제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켤당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주 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켤당문화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켤당문화로 인해 제주 선교가 막혀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들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지 않고서 불가능한 것도 역시 제주 선교이다. 제주에서의 켤당문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켤당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 문화를 활용하고 협력하는 선교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김영동은 제주 켤당문화의 “‘동일시, 분리, 변혁’의 적용을 통한 기독교적 방식을 창출해야 한다.”¹⁴⁷⁾고 주장한다. ‘동일시’하는 입장에서는 복음을 수용한다고 해서 켤당문화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형식이나 전통을 기독교적 형식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호칭체계, 겹사돈, 지역 연대·일연 대의 문화 형식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문화 형식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지만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김영동은 오히려 “켤당문화의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전통문화에서 느끼지 못했던 더욱 더 강한 유대감과 친밀감과 공동체적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의식을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야 한다.”며 제주 선교에 있어서 켤당문화로의 참여를 이끌고 있다.¹⁴⁸⁾

제주는 행정구역상 같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제주도 사람들 역시 같은

146) 김건수, “21세기 제주도 선교 전략 및 전망에 관한 연구,” 53쪽.

147) 김영동, “제주도 ‘켤당문화’에 대한 창조적 긴장의 문화 신학적 선교,” 『장신논단』 제30권(2007), 368-69쪽.

148) 김영동, “제주도 ‘켤당문화’에 대한 창조적 긴장의 문화 신학적 선교,” 『장신논단』 제30권(2007), 368-69쪽.



한민족이지만, 제주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하위 문화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 제주 선교에 있어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한국 교회 중 하나’라는 인식 보다 동일 문화권에 있지만 하위 문화가 다른 ‘또 하나의 선교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동일한 문화권이라도 그 안에 내재하는 상호 충돌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수많은 하위 문화가 있는 것이다. 문화의 차원 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 그리고 문화를 초월하는 영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¹⁴⁹⁾ 특히 제주는 그 특성상 하위 문화는 더욱 더 발달해 있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가 토착화 되면서 보수적인 전통사상과 맞물려서 근본주의로 몰리게 되어 또다른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각성하며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이들의 켄당문화를 이해하며, 오히려 제주 선교에 있어서 좋은 매개체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이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눈높이를 맞추며 접근할 필요가 있다.

B. 교육 선교 정책과 지역 사회와의 연대(連帶)

제주 선교는 그동안 사회 참여나 사회 봉사에 대한 측면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선교 초기에는 문맹퇴치 운동과 애국심을 강조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았지만, 제주 선교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턱없이 부족했다. 초기 제주 선교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여겼던 과제는 이러한 사회 참여가 아니라, 다름 아닌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건립하고 교세확장에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복음 전파가 너무나 중요했지만, 도가 지나칠 정도로 전도 중심으로 치우친 선교 정책이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것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미자립 교회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사회 참여보다는 ‘교회 유지’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¹⁵⁰⁾

149) 김영동, “제주도 ‘켄당문화’에 대한 창조적 긴장의 문화 신학적 선교,” 『장신논단』 제30권(2007), 353쪽.

150) 정은렬, “통전적 선교신학에서 바라본 제주 선교,” 45-46쪽.



한국일은 “세상을 하나님의 선교의 장으로 간주하며 세상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복음의 실천성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선교’”¹⁵¹⁾의 입장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과 개교회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 사회 전체를 품고 대하는 포괄적인 선교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1. 교육 선교 정책

1970년 기독교 연감을 살펴보면 한국 교회가 세운 기독교 학교가 다음과 같이 통계로 나와있는데 제주도에선 기독교 학교가 전혀 세워지지 않았음을 살펴 볼 수 있다.

<표8> 한국 교회의 기독교학교¹⁵²⁾

시도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중·고등	26	11	16	3	2	14	9	11	12	3	0	107
대 학	7	3	0	2	0	2	0	0	3	2	0	17

제주도의 미신적이며 자기 중심적이고 현세 중심적인 특성을 감안한다면 교육 시설 등을 통한 사회 참여적 선교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김도일은 “선교와 교육은 뿔레야 뿔 수 없는, 떼면 안되는 한 몸과 같은 개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개념”¹⁵³⁾이라고 주장한다. 선교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교육은 선교로 인하여 제자된 사람을 온전히 균형잡힌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천주교과 비교해서 개신교의 미흡한 선교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이라는 간접 선교이다. 선교에 있어서 교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드는 ‘부담’이 되는 정책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초기 한국 교회에 온 해외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펼친 정책이 바

151) 한국일, “제주 켈당문화와 제주 선교: 에큐메니칼 선교 관점에서,” 392쪽.

152) 한관용, “제주지역에 있어서의 기독교 선교환경과 선교 전략”(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1987), 89쪽.

153) 김도일, “교육선교에 관한 연구: 제주교육선교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기독교교육 논총』 제 34집(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3. 06. 30), 4쪽.



로 학교와 교육 기관을 설립한 것이다. 당장에는 그 결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한 결과 많은 기독교 인재를 당시 해외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교육 기관에서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성경의 안디옥 교회를 보아도 선교에 있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우수한 교사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썼다. 이들에게 교육을 받은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지도자들은 후에 여러 모양으로 선교를 지원하는 지도자들이 되었다.

배요한은 “선교는 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¹⁵⁴⁾고 말한다. 그만큼 선교의 정책에 있어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초기 한국 교회의 경우를 살펴보면 분명 교회의 숫자가 부족했다. 하지만, 교육 기관과 교육 시설 역시 열악했다. 이 때에 한국에 파송을 온 해외 선교사들의 선택은 무엇이었겠는가? 바로 교육 기관을 설립한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의 정책은 결실로 나타났다.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양성된 교육생들은 또 다른 교육자나 목회자로 배출되었고, 이는 한국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김정서는 “어느 누구의 목회도 결국은 교육적”¹⁵⁵⁾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예수가 내린 지상 명령,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뜻에 따라 그는 목회를 하는 한, 그것은 당연히 교육적인 목회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교회마다 한국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로드맵이 정직하고 알차게 제시되어야 한다.”¹⁵⁶⁾고 주장한다. 철저히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실행해야 하고, 또한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제주의 일부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서는 교육 선교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주에는 기독교 교육 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초 공사가 튼실하지 않은 채 집을 짓거나 확장 공사를 할 수 없듯이, 선교에 있어서 이 기초 공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교육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이 기초 공사에 해당하는 교육 정책을 세워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

154) 배요한, “안창호를 통해서 배우는 교육선교”(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5), 68쪽.

155) 인터뷰, “교육하는 교회, 제주영락교회 김정서 목사, 목사님의 교육철학을 듣는다,” 『교육교회』(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7), 5-7쪽.

156) 위 인터뷰.



고 과감한 예산을 집행하여 교육 기관과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2. 지역 사회와의 연대(連帶)

오랜시간 동안 기독교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종교로 인식이 되었다. 한국일은 부정적인 요소로 “기독교인들은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이중적인 사람들로 평가되기도 한다.”고 언급하며 제주 선교에 있어서 언행일치를 강조한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이 신뢰받지 못하면 그 증거도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은 일치되어야 하고, 이것은 결국 이들이 속한 지역 사회에 녹아들어야 한다. 선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한 자세를 가지고, 선교 전략으로서 봉사가 아닌 진정으로 지역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¹⁵⁷⁾

천주교가 급성장한 요인 중 하나는 민간신앙과 조상제사를 수용한 면도 있지만, 지역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이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천주교에 비해 개신교는 지역 사회와의 연대나 학교 및 교육 기관의 설립, 병원이나 고아원 등의 설립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신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인 간접 선교가 필요하다. 복음을 제시하는 직접적인 선교 외에도 제주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제주에서 개신교는 타종교에 비해 ‘소수종교’로 불린다.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서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인식 자체도 개신교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 정책이 필요하다.

개교회의 성장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 하고 교회는 그 속에서 구성 공동체로서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한 예로 제주영락교회의 경우에는 매년 2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선교바자회’를 열고, 2016년을 기점으로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제주영락교회의 선교바자회는 교계 뿐만 아니라 제주 내에서 인지도가 있는 대표적인 행사가 되었다. 교회를 개방하여 바자회 기간 중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들을 초대하고, 여러 연계 행사를 준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157) 한국일, “제주 권당문화와 제주 선교: 에큐메니칼 선교 관점에서,” 399쪽.



한국 교회는 지역 사회에 먼저 찾아가는 ‘선교적 교회’의 정책을 펼침으로, ‘문턱이 낮은 교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로의 변모를 꾀할 필요가 있다.

C. 공격적인 선교 정책의 자제와 협력 선교의 모색

한국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신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자립 정책을 기반으로 둔 초기 선교의 정책과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추진력과 열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점은 해외 선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해외 선교사들이 꺼려하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거나 미전도 종족 국가에서도 한국 선교사들은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열정과 현지 문화와 환경을 배려하지 않은 선교 정책은 수많은 역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공격적인 선교 정책으로 인해 현지 사회와의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인해 그들의 전통문화와 삶의 양식을 무시한 채 ‘복음 전도’라는 포장으로 이질적인 ‘한국식’ 선교 정책으로 인해 등을 돌리는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한국 선교사들 간의 갈등과 마찰은 그것을 경험하는 현지인들로 하여금 더욱 더 기독교 신앙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선교사들 간의 서열과 권력 다툼 역시 복음의 길을 막고 있는 요인이다. 이는 열심히 본인의 역할을 실천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건전한 선교 정책에 있어서 부정적인 선입견과 장애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한국인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틀 안에 개인구원과 교회 개혁 및 성장의 선교 패러다임을 포함해야 한다.”¹⁵⁸⁾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과거에 선교(mission)는 복음전도(evangelism)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선교의 목표는 개인의 영혼구원이었다. 물론 교육, 의료, 사회봉사 활동들이 함께 수행되었지만 이것은 전도를 위한 수단이나 전략으로 간주하였다. 오늘의 변화된 상황에서 선교의 개념은 전도 차원을 넘어 폭 넓은 의미와 활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¹⁵⁹⁾고 덧붙여 설명한다.

한국 교회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는 제주 선교에 있어서도 깊게 고찰해야 할 부분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들의 전통과 문화를 ‘복음 전파’

158) 위 논문, 382쪽.

159) 한국일, “제주 권당문화와 제주 선교: 에큐메니칼 선교 관점에서,” 382쪽.



라는 합리성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나아가서 마찰을 일으키거나 제주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육지의 교회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단기 선교팀들을 파견하여 제주 선교에 앞장서며 이들을 돕고자 한다. 물론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들도 있지만 현지인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현지 교회와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제주 내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육지 교회의 자본과 인원을 동원하여 제주 농어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좋으나, 문제는 이들이 떠난 다음의 현지 교회의 어려움이다. 몇 일 내로 끝이 나는 단기 선교와 달리 현지 교회의 사역은 장기간으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단기 선교팀들이 다녀간 다음 ‘수습’ 사역에 일정 기간 쏟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단기 선교팀과 현지인들의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단기 선교팀 본인들의 열정이 자칫 ‘복음의 열정’에 투영될 경우 현지 상황에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하는 현지교회나 수 십 년간 선교 사역을 해온 목회자를 우습게 보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한국 교회, 특히 육지의 교회들은 현지 교회의 요청과 의견을 수렴하여 협력하여 제주 선교를 감당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1회성에 그치는 선교 정책이 아닌 지속적인 선교 정책이 필요하다. 선교는 결국 교회가 희생될 때 가능한 것이다. 목표 지향적이거나 성과 위주의 선교 정책이 아닌 지역 사회에 녹아들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선교를 펼쳐야 한다.

D. 제주 교회의 장기적 정책

제주 지역의 목회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제주 교회의 배려도 빼놓을 수 없다. 피터 와그너(Peter Wagner)는 목회의 수명(Pastoral Longevity)에 있어서 “성장하는 교회의 목사들은 다른 지역 교회로 옮기려는 생각을 하는 목사들이 아니며 성장하는 교회의 목사들은 대체적으로 목회 수명이 길게 그 특징이 있다.”¹⁶⁰⁾고 말한다. 한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160) Wagner Peter, *Your Church Can Grow*(U.S.A. CA.: Regal Books A Division of GL Publications Ventura, 1984), 67-68쪽.



비록 총회 기구 산하에 제주노회가 있고 그에 따른 개교회가 존재하며 같은 행정 관할과 정책을 표방하지만, 제주 교회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제주 지역의 교회는 육지와 같은 교회로 인식하기 보다 특수성을 가진 국내 선교 정책 가운데에 있는 교회라는 점이다. 섬이라는 특수성과 폐쇄된 사회라는 사실에만 기인하여도 제주 선교를 정착시키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물리적 비용이 드는 것이다.

제주에 있는 현지의 사역자들은 육지의 선교 방식이 아닌, 제주도의 실정에 어울리는 선교의 정책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육지 교회의 단기적이고 일방적인 선교 정책을 수용하기보다는 제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에 대한 개선과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선교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더욱이 폐쇄된 문화 속에서 일방적인 선교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재은은 “제주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 갖는 반감은 서로의 단절 때문”¹⁶¹⁾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더욱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이를 통한 긴밀한 유대가 필요하다.

결국 주민들과의 소통과 지역 사회로의 침투는 제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제주의 개교회는 목회자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소신껏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회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현실에 만족하는 것으로 교회의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기에 현상 유지 보다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지역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주가 가진 특성을 살려서 어떠한 정책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현지 교회가 처한 상황과 배경을 연구하여 장기적인 선교 정책이 필요하다.

161) 이재은, “제주도의 조상제사와 기독교,” 102쪽.



V. 세계 선교의 주체로서의 제주 교회의 역할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171개국 2만72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⁶²⁾

짧은 선교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뺏어 나아가며 그 사명을 다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자립하는 선교의 원칙을 지킨 것과, 교회의 본질인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이다.

선교의 대상지였던 한국 교회는 제주를 향해 선교의 사명을 다해왔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제주는 이제 한국 교회가 그 사명을 다 한 것 처럼, 복음을 받다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파송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할 때가 온 것이다.

A. 제주 선교의 비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해외 선교를 처음 감당한 교회는 예루살렘교회가 아닌 안디옥교회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는 다름아닌 선교의 대상지였던 안디옥교회였다.¹⁶³⁾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안디옥교회에서 시작된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선교는 안디옥교회로 전파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다시 선교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다.

모이는 교회, 즉 모달리티(Modality)의 역할이 예루살렘교회였다면, 흩어지는 교회, 소달리티(Sodality)역할을 안디옥교회가 실천한 것이다. 바로 이 초대교회부터 이어진 선교의 역사는 세월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가 모달리티와 소달

162) “파송선교사 171국 2만7200명,” 『제주기독신문』, 2016. 2. 13. 1쪽.

163) 사도행전 13:1-3.

1.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리티의 역할을 주고 이어받는 형태를 띄게 된 것이다. 한국 교회에 선교를 파송한 나라들 역시 모달리티에서 소달리티로 전환하여 그 역할을 감당 것이고, 한국 교회는 다시 제주 선교를 하는 소달리티 교회를 지향 했던 것이다. 고무적이었던 것은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것이다. 피선교국으로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을 강조하며 독노회 설립과 동시에 제주 선교를 결의하고 실행한 것은 한국 교회의 선교 가능성과 저력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해외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 제주에서 가장 큰 교단인 통합측 기준 제주노회 파송선교사는 18명에 불과한 것이다.¹⁶⁴⁾ 이마저도 특정한 몇 교회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18명의 선교사들 중에서도 대부분 개교회 파송 선교사들이고 총회 파송 선교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제주 교회는 모달리티를 넘어서 소달리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왔다. 제주 선교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여러 고찰을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과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모이기 위해 힘을 썼다면 이제는 흩어져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제주 선교는 결국 세계 선교로 이어져야 한다.

B.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는 세계 선교

제주도는 한반도 서남단에 위치한다. 지리적으로 남해와 중국의 동쪽 해상에 위치하며 일본과도 가깝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제주도는 동쪽으로 일본의 규슈지방, 서쪽으로 중국대륙, 남쪽으로 일본의 류큐제도(琉球諸島), 타이완(臺灣) 및 필리핀 제도, 북쪽으로 한반도와 마주보는 위치에 있다. 선사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변 지역과 인접 국가를 잇는 해양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여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¹⁶⁵⁾

164) <부록1> 참고.

165)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전라 · 제주편』 (서울: 국토지리정보원, 2010.



고민희는 “제주도는 ‘섬들의 체인’¹⁶⁶⁾의 안쪽에 위치한 ‘해중도(海中島)’이며 고대 교역이 상당했던 쿠로시오 해류가 관통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연구하였다. 실제로 제주에는 서양 선박들이 일본을 향하던 중 난파되어 머물게 된 사례가 있다. 1653년도에는 하멜 일행이 제주에 표류하였고, 그가 작성한 여행기에 의해 ‘퀘파트(Quelpart)’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주변을 관통하며 지나가야 하는 관문이었고, 꾸준한 방문을 통해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¹⁶⁷⁾

선교의 요충지에 대한 개념은 선교 초기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귀츨라프는 제주를 선교의 거점으로 판단하였다. 귀츨라프는 독일 태생으로 엄격한 경건주의 신앙으로 해외 선교를 꿈꾸며 중국에서 준비를 하던 중 조선을 향하여 항해하는 상선에 승선하게 되었고, 이 배는 충남 보령 고대도에 도착하였다. 1832년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정박하는 동안, 귀츨라프는 고대도 뿐만 아니라 인근 도서지역과 내륙까지 선교를 시도하는 열정을 보였다. 그리고 고대도를 떠나 8월 17일에 제주도 해안에 이르렀다. 귀츨라프는 제주도가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일본, 조선 만주 그리고 중국을 잇는 선교기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¹⁶⁸⁾

제주는 마지막 때에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다른 지역에 선교를 감당하는 소망의 길목이다. 제주의 남쪽에 위치한 동남아시아의 지역과 태평양으로 뻗어 나아가는 적극적인 선교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¹⁶⁹⁾ 제주는 일본과 거대한 중국과 대륙을 통해 러시아와 유럽으로 향할 수 있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할 수 있는 출발지인 것이다.¹⁷⁰⁾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제주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과거

166) 섬들의 체인은 중국의 푸젠성에서 평후열도를 지나 포모사(대만)를 거친 후, 포모사에서 다시 류큐를 거쳐서 큐슈의 가고시마까지 가는 섬들의 네트워크이다. 주장현, “16-19세기의 동아시아 해양세계와 서구인의 제주도 인식,”(제2회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타자가 본 제주도’ 국제 심포지엄: 제1부, 주변국가에서 본 제주도,” 2010년 09월 17일(금)119일(일). 15쪽. 고민희, “제주도 초기 교회 형성과정 연구: 이도종의 생애와 목회활동을 중심으로,” 27쪽 각주 재인용.

167) 고민희, “제주도 초기 교회 형성과정 연구: 이도종의 생애와 목회활동을 중심으로,” 27쪽.

168)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18쪽.

169) 강태연, “세계 섬 선교 전진기지로서의 제주 선교를 향한 기도전략”(석사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14), 16쪽.

170) 박용규, 『제주 기독교회사』, 93쪽.



에는 제주가 유배지나 외딴 섬 정도로 인식이 되었다면 정보와 통신과 교통수단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더없이 좋은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고 선교에 있어서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

C. ‘국제자유도시’의 장점을 활용하는 세계 선교

오늘날에 이르러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제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제주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념을 넘어서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 그 위상과 가치가 변모되었다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란 “사람,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이른바 ‘국경없는 도시’를 일컬으며 사람들은 물론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특정 지역으로 특히 기업활동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는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무역이나 생산을 비롯해 국제금융과 주거, 관광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이다.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곳에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나 비자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활동은 물론 제한이 없이 금전을 거래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수입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거나 감면되고 토지이용에도 특별한 장애가 없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홍콩을 꼽을 수 있고,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섬을 들 수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오키나와를 국제자유도시로 추진을 하고 있다.¹⁷¹⁾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가 갖는 가장 큰 특 매력은 비자(VISA) 없이 제주에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제도 이다.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비자를 필요로 하는 모든 외국인인 30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한 것이다.¹⁷²⁾ 제주에는 한 해 1,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입도하고 있고, 이 중 외국인 관광객 수만 해도 200만 명이 넘는 상황이다. 외국인 관광객 중에도 중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동남아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평소 비자 문제로 우리나라를 여행하기 힘든 국가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171)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했다.

172) 예외국가: 가나,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등 이상 12개국.



제주의 관광객은 2013년도부터 1천 만명이 넘게 유입이 되고 있다.¹⁷³⁾ 이는 인도네시아의 발리나 하와이보다도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제주 관광객 유입의 수는 2014년도에는 1천 2백만이 넘어섰고, 이중 외국인 관광객이 3백만 명이 넘게 되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총 관광객의 수는 13,664,000명이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메르스와 세월호의 여파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2,624,000명에 달했다.¹⁷⁴⁾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세계를 포용하는 국제 교류 도시를 기본 방향으로 세계화의 새로운 흐름을 적극 수용하고, 세계는 물론 한반도 평화에 공헌하는 것”¹⁷⁵⁾이다. 또한 “21세기 경제 체제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화·개방화를 지향하며,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시아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¹⁷⁶⁾이다.

제주에서는 해마다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와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다. 우수한 한국의 교회 시스템과 선교의 정책을 일일이 찾아가며 전수할 수 없기에, 제주에서 이들을 향한 교육 정책 등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로서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제주 교회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제주 내 교회와 제주 출신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세계 선교를 위한 제주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다. 2009년 제주 노회(통합)에서는 최초로 부총회장을 추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 혹은 제주와 관련된 목회자들은 제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며 결집하게 되었다. 제주노회의 목회자들, 제주 출신의 목회자들, 그리고 제주에서 사역을 경험했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제주 선교 포럼’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제주 선교 포럼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제주 선교를 점검하고, 제주 선교의 미래를 논의하고 준비하는 장이 마련되었다.¹⁷⁷⁾

173) <부록2> 참고.

174)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알림마당[2016. 6.15 접속].

175) 한국학중앙연구원(www.grandculture.net) “제주 국제 자유 도시,” 한국향토문화대전[2016. 6. 15 접속].

176) 위 연구원 검색.

177)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392쪽.



<표9> 제주 선교 포럼 현황

회	연월일	장소	발제 및 토론 / 발제자
1	2010. 2. 22	서교동교회	조상제사의 수용과 배척, 그 이론과 실제 / 김인주
2	2010. 5. 31 - 6.1	제주성안교회	제주토착문화의 선교적 의의 / 조성윤 제주에서의 다음세대 선교 / 정영택 제주 선교의 역사적 고찰 / 김영동
3	2011. 3. 3	영은교회	WCC 부산총회와 선교 / 이홍정 한국사회를 향한 의 책임 / 노영상
4	2011. 10. 5	이기풍기념관	제주 선교 포럼의 역할 / 이홍정 제주목회와 제주 선교 포럼 / 류정길
5	2012. 5. 7 - 8	경주제일교회 땅끝교회	한국 교육목회의 목회적 과제와 방향성 / 정영택

제주 선교 포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홍정 목사가 제안하는 세계 선교를 향한 제주의 역할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바로 국제자유도시의 긍정적인 효과로서 관광지로서 제주의 무비자 방문의 길이 열렸기에 한반도 어느 곳에서도 실현하기 어려운 제주의 지정학적 장점에 주목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 교회지도자들을 효과적으로 양성하는 ‘선교기지’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가깝게는 중국교회의 지도력을 양성하는 일에 제주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하며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계획한 것이다.¹⁷⁸⁾

제주는 이제 ‘보냄받은’ 선교의 역할과 ‘보내는’ 선교의 역할,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에 놓여있다. 지정학적 위치와 행정 관할의 장점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이다. 이제 제주는 선교의 ‘대상’이 아닌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선교 사역들은 ‘제주’이기에 가능한 것이고 그 것은 결국 제주 교회가 주도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다. 능동적인 자세로 선교의 주체로서 제주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한다.

178) 위의 책, 393쪽.



VI. 결론

A. 요약

지금까지 제주 선교의 고찰과 선교의 주체로서의 제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주 선교는 여전히 진행중이고 또한 제주 선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발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문화와 관습을 살펴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아픔을 함께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I 장에서는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된 배경의 문제의 제기과 연구 목적,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를 살펴 보았다. 짧은 복음 수용의 역사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가 선교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지만 세계 선교의 흐름에 따르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초기 복음의 역사 가운데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지켜왔고, ‘제주 선교’라는 첫 ‘해외 선교’를 감당하게 된 것은 큰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이 제주 선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제주를 향해 나아가야할 길과 제주 교회의 선교 전략 등의 연구범위를 살펴보았다.

II 장에서는 제주 선교의 역사와 제주 선교의 의의를 연구하였다. 복음 수용 이전의 제주 상황과 천주교의 선교 정책에 대해서 살펴 보았고 제주 선교에 대한 장로회 독노회의 파송 결의와 그에 따른 이기풍 선교사의 파송과 그 사역을 살펴보았다. 또한 초기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제주 선교가 주는 의의를 논의하였는데, 그것은 최초의 해외 선교라는 점과 이후에 있을 중국 산동선교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또한 제주 선교는 해외 선교회의 지원이 아닌 한국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회를 조직하는 자립하는 선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III 장에서는 제주 선교에 대한 진단을 하였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신앙, 그리고 선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주 선교의 진단에 있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이다. 전통문화 안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신앙과 조상제사라는 뿌리깊게 박혀 있는 이들의 삶의 규범이 있다. 따라서 제주 선교에 있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신



양과 조상제사는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켄당문화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를 더욱 결속력 있게 만들기 때문에 선교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폐쇄성과 배타주의는 제주 선교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민간신앙과 조상제사를 수용한 천주교는 개신교에 비해 눈부신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IV장에서는 이러한 제주 선교의 진단을 통해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한국 교회는 먼저 제주 문화를 이해해야 하고, 제주도 사람들과 협력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 민간신앙과 조상제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을 살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조상에 대한 예우가 교회 신앙에 이어져 나타날 수 있는 올바른 토착화 정책과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천주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육, 의료, 복지 등을 통한 간접 선교도 필요하다. 지역 교회와 연대하여 제주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V장에서는 세계 선교의 주체로서 제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주는 지리적인 장점과 ‘국제자유도시’라는 행정의 이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좋은 상황에 있다. 이 점을 살려서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선교 사역을 제주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을 피력하였다.

B. 제언

올란도 코스타스(O. E. Costas)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공동체는 유기적인 삶 속에서 그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며, 신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자신이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종의 모습으로 화육해 들어가는 것” 이라고 말한다.¹⁷⁹⁾ 이처럼, 제주 선교는 그 접근에 있어서 직접적인 복음제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현지인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제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양식과 문화적인 특성을 존

179) O.E. Costas, 김승환역, 『성문밖의 그리스도』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179쪽.



중하고 이해해야 한다. 제주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새로운 문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성육신’이야말로 전 인류를 향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복음 증거라는 점을 생각할 때에 제주 선교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향한 열린 마음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녹아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임해야 한다.

김건수는 제주 선교에 있어서 “사회적인 접근을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현지인들과 어울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주인의식보다는 종의 의식을 가지며,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¹⁸⁰⁾고 말한다. 현지의 문화와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교를 진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주에서의 선교 정책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올바른 토착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사람들이 지켜온 조상제사와 이들이 지켜온 민간신앙을 그 의미와 깊은 뜻은 지키되 그것을 추도예배의 형식이나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동안 지켜야 할 ‘효’ 사상 등으로 전환시키거나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역사적인 아픔을 함께 품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제주 4·3 사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치적 대립과 이해 관계로 인해서 온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사람 모두가 이 사건의 피해자이고 큰 상처를 받았던 것이다. 한국 교회와 제주 교회는 이러한 아픔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교회가 가져야 할 제주 선교에 대한 마음은 무분별한 정책으로 일종의 ‘영적 만족’을 위한 개교회의 ‘단기 선교’에 그쳐서는 안된다. 장기적인 안목과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제주 교회와의 협력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제주는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계적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물론 여러 미흡한 부분이나 ‘국제자유도시’로서 개선되어야 할 규제나 시민의식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의 지리적 위치의 장점과 이에 따른 세계 속에서의 역할로 본다면 무한한 잠재성이 있고, 또한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주 교회는 이제 선교를 받는 대상을 벗어나 선교의 주체로서 세계 선

180) 김건수, “21세기 제주도 선교 전략 및 전망에 관한 연구,” 73쪽.



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장점과 행정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고 발휘해야 할 때가 왔다. 머지 않아 제주는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될 것이고, 제주 교회는 이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국제자유도시로서 그 역할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것은 제주를 통한 세계 선교의 역할이 더욱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가늠케 해 준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많은 선교 대상국의 외국인들이 제주를 방문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를 찾아오는 이들을 향한 선교의 전략도 제주 교회는 연구해야 할 것이다.

제주를 찾아오는 선교 대상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교 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들을 향한 교육 시설이나 관련 기구의 설립을 해야 한다. 교단과 노회 차원의 전문인 선교사를 두어서 제주에 오는 외국인들을 향한 선교의 전략을 꾸려야 할 것이다. 제주 선교 포럼은 이에 따른 대표적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대회를 범 교단의 차원으로, 제주 교회와 한국 교회의 연합을 이끌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고, 그 중심에 제주 선교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 제주 선교를 통해서 중국의 산동 선교에 영향을 주었고, 초기 복음 수용의 역사 속에서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선교의 대상지가 아닌, 선교 파송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급성장한 한국 교회는 최근 들어 교회내의 역할들에 있어서 불균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초기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선교의 역사와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교회는 과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세계 선교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영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발휘되고 있는지, 또한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방향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제주 선교의 가능성과 제주를 통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함께 품어야 한다. 선교적 거점으로서 제주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 교회와 각 교단의 차원을 초월하고 협력하여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한다.



참 고 문 헌

1. 동양서적

-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 제주문화, 1990.
- 민경운. 『제주와 산동 선교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5.
- 박용규. 『제주 기독교회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 서성환. 『제주 선교 100년 어제와 오늘과 내일』.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 유홍열. 『한국천주교회사』, 하. 서울: 가톨릭출판사, 1981.
- 이영훈.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컨콜디아사, 1982.
- 조성윤, 이상철, 하순애.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서울: 백산서당, 2003.
- 현길언. 『섬의 반란, 1948년 4월 3일 - 제주 4.3 사건의 진실』. 경기: 백년동안, 2014.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 교회 첫 선교사 이기풍 목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08.
-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서울: 쿠파출판사, 2016.

2. 서양서적

- Allen D. Clark.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1.
- Wagner Peter. *Your Church Can Grow*. CA: Regal Books A Division of GL Publications Ventura, 1984.

3. 번역서적

- 곽안련(Allen D. Clark), 박용규·김춘섭 역, 『한국 교회와 네비우스 선교 정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O.E. Costas, 김승환역, 『성문밖의 그리스도』.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4. 논문(논문집, 잡지)

김도일. “교육선교에 관한 연구: 제주교육선교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기독교 교육논총』 제34집,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3.

김영동. “제주도 ‘웬당문화’에 대한 창조적 긴장의 문화 신학적 선교.” 『장신논단』. 제30권, 2007.

문무병. “민속-제주도 바닷가와 민간신앙.” 『어항』. 여름호, 한국어촌어항협회, 2007.

박용규. “제주 선교 100년 그 역사와 의미.” 「제주기독교 100주년 기념위원회 기독교 지도자 세미나」. 2008.

변창욱. “한국 장로교회 선교사 파송 100년(1907-1956).” 『선교와 신학』 제19집, 2007.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독노회록(1907).”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80.

서정민. “기독교 선교가 제주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 『신학논단』. 제28권, 2000.

안교성. “한국 교회 선교의 기원에 관한 소고: 제주 선교와 이기풍 선교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선교KMQ』. Vol.9 No.1 통권31호, 2009.

조성윤. “제주의 무속신앙과 신종교” 『신종교연구』. Vol.9, 한국신종교학회, 2003.

주강현. “16-19세기의 동아시아 해양세계와 서구인의 제주도 인식.” 「제2회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타자가 본 제주도’ 국제 심포지엄: 제1부, 주변국가에서 본 제주도」 2010.

한국일. “조상제사에 대한 선교신학적 고찰: 복음과 문화의 관점에서.” 『장신논단』. 제24권, 2005.

_____. “제주 웬당문화와 제주 선교: 에큐메니칼 선교 관점에서.” 『장신논단』. 제30권, 2007.

인터뷰, “교육하는 교회, 제주영락교회 김정서 목사, 목사님의 교육철학을 듣는다.” 『교육교회』.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7.



5. 학위 논문

- 강태연. “세계 섬 선교 전진기지로서의 제주 선교를 향한 기도전략.”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14.
- 고민희. “제주도 초기 교회 형성과정 연구: 이도종의 생애와 목회활동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12.
- 김견수. “21세기 제주도 선교 전략 및 전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2009.
- 민경운. “제주와 산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 박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4.
- 박장래. “이기풍 선교사의 제주 선교 초기 활동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1997.
- 박정환. “제주도 개신교 자생적 신앙공동체의 생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 1904~1930.”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3.
- 배요한, “안창호를 통해서 배우는 교육선교.”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5.
-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8.
- 이재은. “제주도의 조상제사와 기독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2011.
- 정은렬. “통전적 선교신학에서 바라본 제주 선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8.
- 한관용. “제주지역에 있어서의 기독교 선교환경과 선교 전략.” 목회학 박사학위논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1987.

6. 백과사전, 신문, 인터넷

- 『교회용어사전: 올바른 용어』.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제주사연표 II』. 2006.
-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알림마당, 2015.01.22일자 첨부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www.grandculture.net, 한국향토문화대전.



“국제자유도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제주도의 위치와 지리적인 범위.”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 서울: 국토
지리연구원, 2010.

“제주국제자유도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교회 파송선교사 171국 2만7200명”, 『제주기독신문』, 2016. 2. 13.



<부록1> 제주노회(통합) 해외 선교사 파송 현황¹⁸¹⁾

이름	파송교회	사역지
서신길, 민효숙	제주영락교회	콜롬비아
고광삼	제주영락교회	파라과이
차미정	제주영락교회	필리핀
강명자, 변재강	제주영락교회	인도네시아
부형제	제주영락교회	C국
김비파, 김수금	제주영락교회	U국
김은희	제주영락교회	우간다
오태근	서귀포교회	캄보디아
조남희		타지키스탄
박재규, 이은자	제주성안교회	북방
김무열	제주성안교회	우간다
윤재승	제주성안교회	우간다
백계환	법환교회	캄보디아
고승제	제주성안교회	이스라엘
이승재	법환교회	폴란드
이교성	한림교회	뉴질랜드
유웅식	제주성지교회	모로코

181)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389-390쪽.



<부록2> 연도별 제주 관광객 현황¹⁸²⁾

구 분	전 국 (외국인: 천명)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관 광 객 (천명)		
		계	내국인	외국인
1990	2,959	2,992	2,757	235
1991	3,196	3,205	2,929	276
1992	3,231	3,422	3,179	243
1993	3,331	3,464	3,187	277
1994	3,580	3,693	3,470	223
1995	3,753	3,997	3,755	242
1996	3,684	4,144	3,935	209
1997	3,908	4,363	4,179	184
1998	4,250	3,291	3,067	224
1999	4,660	3,667	3,420	247
2000	5,000	4,110	3,822	288
2001	5,200	4,197	3,907	290
2002	5,347	4,515	4,226	289
2003	4,753	4,913	4,692	221
2004	5,818	4,932	4,603	329
2005	6,021	5,020	4,641	379
2006	6,155	5,312	4,852	460
2007	6,448	5,429	4,888	541
2008	6,890	5,822	5,281	540
2009	7,817	6,523	5,891	632
2010	8,797	7,578	6,801	777
2011	9,794	8,740	7,695	1,045
2012	11,140	9,691	8,010	1,681
2013	-	10,851	8,517	2,334
2014	-	12,273	8,945	3,328

182)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알림마당, 2015.01.22일자 첨부자료[2016. 6.15
접속].

